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三鎮

解放이후 西洋의 헤어스타일이
韓國女性の 헤어스타일에 미친
영향에 관한 研究

A Study on Influence of Western Hairstyles on Korean
Womens Hairstyles ever Since 1945

2002年 12월 일

漢城大學校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金 振 淑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三鎮

解放이후 西洋의 헤어스타일이
韓國女性の 헤어스타일에 미친
영향에 관한 研究

A Study on Influence of Western Hairstyles on Korean
Womens Hairstyles ever Since 1945

위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12월 일

漢城大學校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金 振 淑

金振淑의 藝術學碩士學位論文을 인정함

2002年 12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3
제 3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1945년 해방무렵 사회문화 및 헤어스타일	8
1. 1945년 해방무렵 사회 문화	8
2. 1945년 해방무렵 헤어스타일	9
제 2 절 1950년대 사회문화 및 헤어스타일	11
1. 1950년대 사회문화	11
2. 1950년대 헤어스타일	13
제 3 절 1960년대 사회문화 및 헤어스타일	17
1. 1960년대 사회문화	17
2. 1960년대 헤어스타일	20
제 4 절 1970년대 사회문화 및 헤어스타일	22
1. 1970년대 사회문화	22
2. 1970년대 헤어스타일	24
제 5 절 1980년대 사회문화 및 헤어스타일	28
1. 1980년대 사회문화	28
2. 1980년대 헤어스타일	30
제 6 절 1990년대 사회문화 및 헤어스타일	34
1. 1990년대 사회문화	34
2. 1990년대 헤어스타일	36
제 7 절 2000년대 전반기 사회문화 및 헤어스타일	40
1. 2000년대 전반기 사회문화	40
2. 2000년대 전반기 헤어스타일	41

제 3 장 서양의 헤어스타일이 한국여성의 헤어스타일에 미친 영향

제 1 절 1945년 해방이후	43
제 2 절 1950년대	46
제 3 절 1960년대	52
제 4 절 1970년대	56
제 5 절 1980년대	65

제 6 절 1990년대	73
제 7 절 2000년대 전반기	82
제 4 장 결론	
참 고 문 헌	95
국내문헌	95
외국문헌	97
인터넷 웹사이트	98
ABSTRACT	100

그 립 목 차

그림1 <1945년 서양의 헤어스타일-1>	45
그림2 <1945년 한국의 헤어스타일-1>	45
그림3 <195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1>	51
그림4 <195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2>	51
그림5 <195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1>	51
그림6 <195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2>	51
그림7 <196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1>	55
그림8 <196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2>	55
그림9 <196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1>	55
그림10<196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2>	55
그림11<197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1>	63
그림12<197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2>	63
그림13<197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3>	63
그림14<197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4>	63
그림15<197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1>	64
그림16<197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2>	64
그림17<197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3>	64
그림18<197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4>	64
그림19<198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1>	71
그림20<198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2>	71
그림21<198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3>	71
그림22<198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4>	71
그림23<198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1>	72
그림24<198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2>	72
그림25<198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3>	72
그림26<198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4>	72
그림27 <199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1>	80
그림28 <199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2>	80
그림29<199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3>	80
그림30<199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4>	80
그림31<199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1>	81

그림 32<199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2>	81
그림 33<199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3>	81
그림 34<199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4>	81
그림 35<200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1>	84
그림 36<200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2>	84
그림 37<200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3>	84
그림 38<200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4>	84
그림 39<200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5>	85
그림 40<200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6>	85
그림 41<2000년대 전반기 서양의 헤어스타일-7>	85
그림 42<2000년대 전반기 서양의 헤어스타일-8>	85
그림 43<2000년대 전반기 서양의 헤어스타일-9>	86
그림 44<2000년대 전반기 서양의 헤어스타일-10>	86
그림 45<2000년대 전반기 서양의 헤어스타일-11>	86
그림 46<2000년대 전반기 서양의 헤어스타일-12>	86
그림 47<2000년대 전반기 한국의 헤어스타일-1>	87
그림 48<2000년대 전반기 한국의 헤어스타일-2>	87
그림 49<2000년대 전반기 한국의 헤어스타일-3>	87
그림 50<2000년대 전반기 한국의 헤어스타일-4>	87
그림 51<2000년대 전반기 한국의 헤어스타일-5>	88
그림 52<2000년대 전반기 한국의 헤어스타일-6>	88
그림 53<2000년대 전반기 한국의 헤어스타일-7>	88
그림 54<2000년대 전반기 한국의 헤어스타일-8>	88
그림 55<2000년대 전반기 한국의 헤어스타일-9>	89
그림 56<2000년대 전반기 한국의 헤어스타일-10>	89
그림 57<2000년대 전반기 한국의 헤어스타일-11>	89
그림 58<2000년대 전반기 한국의 헤어스타일-12>	89

제 1 장 序 論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미에 대한 탐구는 그 기원을 원시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문명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예술분야는 물론 생활의 모든 면에서 실용성과 함께 미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현대 사회생활에서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미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미를 추구하는 여성에 있어서는 하나의 필수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다.¹⁾

다변화한 20세기를 거치면서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 및 개인의 개성 표현 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다양한 미적 가치의 확대 및 다원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성의 지위나 가치관에도 많은 변화를 보였다. 여성을 구속하거나 억압하려던 가부장적인 사회적 태도는 점점 도태되고, 여성은 한 인간으로써 존중되었으며 개성적인 여성미를 표현하려는 욕구가 증대되었다. 특히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미를 추구하는 여성들의 욕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 및 경제력 향상에 따른 자기 표현방법과 필요성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한 변화에 따른 시대의 흐름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미의 외적 기준은 일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 항상 변화되는 것이므로, 그 시대의 욕구와 문화 조류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새롭게 개발 되어져 나가야 한다.

더구나 인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와 발전을 계속해온 헤어스타일은 의상, 메이크업과 함께 패션경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고 개성의 강조와 유행의 물결 속에 새로운 미용예술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헤어스타일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문화이다. 특히 미용예술로서 모발이라는 살아있는 예술적인 소재를 통해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헤어스타일은 최근 패션이라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양한 스타

1) 미용교재연구회,종합미용이론,유신문화사,1998,p2.

일로 공존하고 있으며 선진화된 미용문화의 도약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세기의 헤어스타일은 세계 제 1차대전의 종결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여건에 의한 여성들의 정신적, 물질적인 변화를 나타내 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전통적 역할에서의 탈피를 상징하는 1920년대의 헤어스타일의 급진적인 변화에 이어 1930년대의 찰스 네슬러의 퍼머넌트 웨이브의 발명과 1960년대의 비달사순의 과학적 커팅 기법의 발표 등이 20세기의 헤어스타일을 크게 발전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헤어스타일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7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토탈 패션이란 개념의 도입은 헤어스타일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게 되었다.²⁾

이와 같은 서양에서의 헤어스타일 변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은 고대시대부터 1973년까지를 기술한 Women'Headdress and

Hairstyles³⁾와 A Survey of Historic Costume⁴⁾등이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70~80년대까지의 연구에 한정시키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연구는 김희숙⁵⁾의 한국과 서양의 화장문화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헤어스타일을 가미하여 연구한 업적이 있고 권대순⁶⁾은 한국 미용문화의 변천에 따라 소비자의 미용실 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는 한국 여성의 화장문화와 미용문화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고 한국여성의 헤어스타일과 서양여성의 헤어스타일을 비교하여 각 시대 상황에 따라 헤어스타일의 형태변화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서양의 헤어스타일이 한국의 헤어스타일의 변화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 연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분석해 보면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해외문화의 교류, 의복을 포함한 다양한 여성패션의 변천과 깊은 상관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1945년 해방이후 부

2) 이주연, 20세기 헤어스타일의 변천 분석,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p 3.

3) Georgia Courais. Women'Headdress and Hairstyles. London. 1973

4) Tortora, P. & K, Eubank. A Survey of Historic Costume. New York. 1989.

5) 김희숙, 20세기 한국과 서양의 화장문화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6) 권대순. 한국미용문화의 변천과 소비행태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터 2002년까지의 한국여성과 서양여성의 헤어스타일을 비교 분석하여 서양의 헤어스타일이 한국여성의 헤어스타일에 미친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해방이후 서양여성과 한국여성의 머리형태의 변천을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비교하여 한국여성의 헤어스타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이후 부터 현재까지 한국여성과 서양여성의 헤어스타일을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미용사적 배경에 따라 변천해온 과정을 연대별로 살펴보고 이때 유행한 헤어스타일의 변화특성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헤어스타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 한국과 서양의 헤어스타일 문화를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서양의 헤어스타일이 한국 여성문화에 수입되면서 한국인의 얼굴 형태와 한국 전통 문화와의 접목과정에서 어떠한 헤어스타일로 변화되고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여 우리 나라 미용사학(美容史學)을 체계화하는데 이바지하고 향후 우리나라 미용문화 발전 전망을 예측해 본다.

제 3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은 서양 여성의 헤어스타일과 한국 여성의 헤어스타일의 변천 과정을 분석한 문헌 연구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한국과 서양의 미용문화 변천과정을 시대적 상황과 관련지어 살펴보기 위해 연대별 헤어스타일과 미용 산업을 분석할 수 있는 한국 및 서양 복식사 등 복식 관련 서적과 논문, 미용 관련 서적과 논문, 미용 미학과 문화사, 미용협회회보, 대한미용사협회 간행물, 머리형태의 특성을 분석해 볼 수 있는 헤어 관련 비디오 슬라이드,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 정기 간행물(trend book), 패션 잡지 및 인터넷 웹사이트 등의 자료를 일차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헤어스타일 흐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진을 수집 검토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사진은 연예인들 및 헤어모델의 헤어스타일이 대중들에게 일반화되고 유행

의 흐름에 민감하여 이들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1945년 해방이후 부터 2002년 현재까지 한국 과 서양의 미용문화 및 헤어스타일로 한정하였고 서양이란 해방 이후 한국과 가장 밀접한 문화교류를 가진 미국을 표준으로 삼았으며 비달 사순 이후의 영국도 가미하였고 1945년 해방이후를 기준으로 삼은것은 일제의 압박 밑에 있던 우리 나라는 외국과의 문화교류가 폐쇄적이어서 서양문화가 거의 수입되지 못하다가 해방이후 부터 문화교류가 활발해 졌고 특히 미국 문화 또한 이 시점에서 들어왔기 때문이고, 서양 문화 중 문화라는 개념은 광범위 하므로 서양 특히 미국의 사회적 배경, 헤어스타일 문화로 한정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미용이란 인체에 표현되는 하나의 예술성을 가진 사람들의 내면적인 가치 판단과 각 개인 고유의 심리적 발로이며 생활양식의 직접적 표현이다.⁷⁾

헤어스타일(hair style)은 머리형이나 머리 형태, 머리풍을 말하는 것으로 헤어두라고도 하며, 프랑스어의 쿠아튀르(coiffure)에 해당한다. 헤어스타일은 신체를 장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얼굴 형태나 유행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화한다.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더욱 복잡하고 장식 방법도 다양하였다.⁸⁾

미용술은 얼굴과 피부 및 두발, 손톱 등의 상태를 개선시키고 미화시키는 기술인 동시에 예술로서 화장품과 손질을 통해 개개인의 외적인 용모를 다루는 응용과학의 한 분야이다.

미의 외적기준은 일정불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사람들의 욕구에 따라 항상 변화되는 것이므로, 그 시대의 욕구와 문화조류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새롭게 개발되어져 나가야 한다.

이것은 즉, 인간본래의 욕구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생활의 모든 면에 대한 미적욕구 이상으로 인간 자신에 대한 미적 욕구가 우선적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4,000~5,000년전에 벌써 화장법이 고안 되어졌으며 머리장식과 빗이 사용되어졌는데, 거기에는 종교적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 깔린 미적인 욕구는 오늘날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현대사회에서는 고대사회와 같이 화장이 일부 특권 계급층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균등하게 미적 권리를 갖고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미용은 의. 식. 주를 만족시키는 물자를 직접 생산해내지는 못하지만 인간의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인간의 생산의욕을 높이 향상시키는 데에 커다란 의의와 목적이 있다.⁹⁾

7) 권대순,전게서,p2.

8) 나윤영,한국여성의 헤어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1.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인식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된 모습을 만들어 낸다. 그 중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신체를 장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화장, 머리장식, 성형 수술, 문신등이며, 이렇게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사회학적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인간이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적극적인 표현 방식인 것이다.

신체의 장식은 원시시대의 동굴벽화에서 출발되었으며 문명이 발달되면서 그 시대 개념과 이상에 맞게 변모해왔다. 이집트 시대에는 아름다움보다는 완벽함이, 그리스 시대에는 비례의 미와 자연의 미를 추구했으며, 중세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노출을 꺼리는 대신 색채가 발전하였다. 이후 산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서 인간 중심의 사고가 주류를 이루게 되면서 인간과 관련된 학문들이 분화되었다. 그 중에서 과학의 발달은 신체를 장식하는 기술과 미적 기법들을 더욱 발달시켜 주었다.

산업 혁명 이후 대중문화의 확산과 물질적 풍요로 인한 아름다움의 추구는 신체 장식과 관련된 분야에서 특히 괄목할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시대적 변천 속에서 미용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미용을 단순한 장식의 의미로 국한시키기에는 너무도 그 영역이 커져 버렸다.

인류가 출현한 이래로 미용은 계속적으로 발전과 변화를 하여 왔기에 미용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예술의 한 분야로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미용은 조형예술로써 디자인의 영역을 확보한 이론적 접근과 20세기에 헤어스타일 경향을 시대별로 알아봄으로써 실용학문으로서의 기반을 확립한 연구도 있다.⁹⁾

20세기에 접어들면서 헤어 디자이너의 개념이 재정립되었다. 종전에는 단순히 모발의 형태 미적 접근에 그쳤지만 오늘날의 헤어 디자이너는 모발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디자이너는 헤어 디자인을 하는데 있어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 시켜야 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이렇게 의도된 방법으로 절차가 수행되어야 한다. 고객의 욕구가 충족된 디자인만이 상품적 가치가 있으며, 손님의 스타일에 맞추어 디자인해야만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9) 미용교재연구회, 전게서, pp1~2.

10) 인체예술학회지 제2권 2호(2000년 8월)

그리고 디자인은 다른 예술 작품들과는 달리 상품가치가 개입되는데, 이는 최소의 재료와 경비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경제성의 개념이 밑바탕으로 깔려 있으며 디자인은 상품성, 실용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헤어 디자이너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행을 이끌 수 있는 창조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디자이너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모방으로 디자이너의 작업을 보면서 흉내내는 단계이다. 이 단계를 넘으면 다른 이들이 나의 작업을 모방케 되는 선도적 위치에 서게 되며, 우리는 이 단계부터 디자이너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된다. 그러나 디자이너는 이것에서 그치면 안되고 더욱 분발해서 유행을 창출하는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창조성은 예술과 기술을 구분시켜주는 것이며, 창조성을 갖고 유행을 창출하는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모든 미용인의 이상이다. 아름다움의 추구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 아름답게 꾸며준다는 것은 디자인의 영역에서는 기능적인 것과 연결하여 색채와 형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예술 가운데 공간적인 형태의 시각적 예술품을 만들어 내는 일을 조형 예술이라고 한다. 조형이란 물건을 만들 때 형태를 잡는 것이며, 조형에는 반드시 색이 따른다. 그러므로 조형이란 모양과 색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둘이 합쳐진 것을 디자인이라고 한다.

디자이너는 먼저 고객의 헤어스타일을 보고서 전체적인 모발 형태를 파악한다. 그 후 고객의 머리결이나 색상, 그리고 신체적 특성 등의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서 디자인 하고자 하는 형태를 구상한다. 디자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는 모발 길이의 배열이나 모발 색상 선택, 로드의 선택을 통해서 설계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형태와 색이 주어지는 것이다.

공간적 형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발견할 수 있다. 헤어도 형태를 다루면서 최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에 조형 예술적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다른 디자인 업종과의 비교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 패션 디자인은 선, 모양, 비율, 색 등이 작품구성에 필수적인 것들이다. 헤어 디자인에 있어서도 패션디자인과 유사하게 머리형, 머리 결, 컬러로 작품 구성을 하여 준다. 안무가들은 몸과 음악의 조화가 중요한데 헤어에 있어서는 시각적 움직임을 위해서 선을 배열해 준다. 또 작곡가는 음표와 음을 배열하여 작품을 만들

고 헤어디자이너는 머리결과 선의 조화, 선의 배열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 낸다.

제 1절 1945년 해방 무렵 사회 문화 및 헤어스타일

1. 1945년 해방 무렵 사회 문화

1) 1945년 해방 무렵 서양의 사회 문화

1939년에 시작된 세계 제 2차 대전이 1945년에 끝날 때까지 세계의 문화는 거의 정지상태였고, 인류는 전쟁의 고통에 시달렸다. 그러나 전후 20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서구는 UN을 결속해 세계대전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사회로의 도입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양극화 체제에 놓이게 되어 두 초강대국을 사이에 둔 팽팽한 이념 대립이 시작되었다.

전후 세계문화의 중심은 미국으로 옮겨갔고, 미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으며,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사람들의 사고체계에도 변화를 가져와 전반기의 권위주의적 사고가 대중중심의 자유로운 사고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¹¹⁾

2) 1945년 해방 무렵 한국의 사회 문화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우리 나라는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광복후 신교육제도 수립을 위해 1945년 10월 설치된 교육심의회는 한국교육의 기본이념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교육제도 개혁을 시행하였다.

정부수립후 1949년 12월에 공포된 교육법에 의해 고등교육도 제도적으로 체재를 정비하였다. 첫째로 대학의 목적을 ‘국가와 인류 사회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해와 그 광범위하고 정밀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고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11) 전선정의 3인,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청구문화사,2002,p172.

대학을 4년제 종합대학과 단과대학 2년제의 초급대학으로 다양화를 꾀했다.

해방후 이른바 민주주의 교육은 제도 및 법적으로 남녀 대등한 여성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여성교육은 근대화 및 민주화의 급진적 변화를 가져왔다. 해방 후 여성의 신교육 이수 인구의 급속적인 증가는 여성들로 하여금 재래의 남녀 평등과 불평등의 인습을 타파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6.25이후 “댄스가 성행하고 퍼머넌트가 유행하여 기이한 양장이 유행” 되는 풍조에 대하여 당시의 한 잡지의 기사에서는 이것을 서양 문화의 수입에 급급한 나머지 우리의 고유문화와 동양문화가 점차 소실되어 가는 현상으로 설명하였다.¹²⁾

2. 1945년 해방 무렵 헤어스타일

1) 1945년 해방 무렵 서양의 헤어스타일

전쟁동안의 내핍한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여자들의 정교한 머리모양은 예외적인 것이었다. 2차 대전의 발발은 여자들의 머리 모양이 굽슬거리는 긴 머리모양으로 바뀌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자들은 머리를 등뒤와 어깨로 길게 늘어뜨렸으며 이 긴 머리를 이마 위로 빗어 넘겨 롤-백 풍과두르(roll-back pompadour) 모양을 만들었다.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들에게는 1920년대의 머리모양처럼 짧게 자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들은 오히려 어깨까지 오도록 머리를 길러서 굽슬거리게 했다.

1940년대 소년들은 긴 머리를 하였고 후에 머리 윗쪽과 옆쪽에 바짝 붙이고 또는 머리 윗쪽에 매듭이나 꺾을 하기도 하였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여학생들은 페이지보이 스타일(page boy style)을 하였던 데 머리 길이는 어깨에 닿고 뒤흘은 자연스럽게 늘어뜨릴 수 있도록 테이프링(tapering)을 하였다. 좀 더 나이든 여자들은 큰 웨이브의 단순한 보브 형태의 머리를 하였으며 1947년까지 비슷한 머리 모양을 하였다.¹³⁾

12) 전선정의, 전계서, pp324~325.

2) 1945년 해방 무렵 한국의 헤어스타일

1945년 광복 이후 일반 여성들의 풍속 중에서 제일 먼저 변한 것은 역시 헤어스타일과 복식이었는데, 일제 말에 금지되었던 퍼머넌트 웨이브가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전히 여성들 사이에서 퍼머넌트 웨이브가 유행하였어도 보수적인 층에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러한 보수적인 태도에 대해 일제 시기와는 달리 이에 반대하여 무조건 비판할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까미머리나 묶는 머리에 익숙해 있던 일반 여성들도 퍼머넌트 웨이브나 세트, 또는 아이론으로 웨이브를 내어 멋을 부렸는데 머리 전체에 웨이브를 낸다는 것은 그 당시의 미용 기술로서는 어려웠다. 그래서 뒷머리는 적당히 빗고 앞머리는 아이론으로 컬(curl)과 웨이브로 자잘하게 내었는데 이것을 그 당시 통상 용어로 아라이 또는 아이론이라 불렀다. 또한 멋쟁이 유한 부인들은 머리 심을 집어넣어 머리 뒤를 부풀게 한 스타일을 했는데, 그것을 도르마키라고 불렀다.

최첨단의 멋을 내는 여성이라든가, 영화 배우, 요정의 여성들 사이에 유행한 헤어스타일로 1946년경에는 링고 스타일이 있었는데, 이는 어깨 정도의 퍼머넌트 웨이브 머리에 이마 앞머리를 잘라 위로 향하게 둥글게 말아서 붙인 것으로 바나나 한 개를 올린 것 같은 웨이브를 머리에 낸 스타일이었다. 이 스타일은 한복이나 양장 차림에도 어울려 일제시대부터 광복 후까지 시대를 초월해 많이 애용하였다.

아이론의 웨이브는 미용실에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 종이를 대지 않고 아이론으로 둥글둥글하게 말아 올리는 소위 지라시 스타일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종이를 대서 머리를 말아 부드러운 웨이브를 내기도 하였다. 이 지라시 스타일은 앙글레즈 스타일에서 파생된 것이고 앙글레즈 스타일은 일제 말기에서 광복 초기까지 멋쟁이 여성들이 애용하였던 스타일이었다. 세로로 물을 감거나 핀컬에 의해서, 또 아이론으로 감아서 나오는 세로 롤의 웨이브 스타일이다. 앙글레즈란 프랑스어로 영국 풍이란 뜻이며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으나 19세기 초에 많이 하기 시작하였다.

광복 이후 젊은 여성들은 대개 어깨에 못 미치는 길이의 단발에 퍼머

13) Robin tolmach Lokoaff & Raquell Scherr, Face Value the poilitics of Beauty Rouhedge Kegan paul, 1984, pp.98~100.

넛트 웨이브를 하였고, 옆가리마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1948년부터 1949년경에는 머리가 짧아지고 머리의 아랫부분에만 웨이브가 있는 세미 업 스타일(semi up style)이 유행이었다.¹⁴⁾

미용계에서는 현대 미용학원이 1945년에 정화 고등기술학교가 1950년에 설립되었고, 가열퍼머는 쇠퇴하면서 다양한 퍼머법이 소개되었는데 콜드 웨이브퍼머, 전기 퍼머 등이 그것이며, 당시에는 웨이브를 안으로 말거나 웨이브를 밖으로 마는 머리모양이 유행하였다. 광복 이후 젊은 여성들은 대부분 어깨에 못 미치는 길이의 단발에 퍼머를 하여 옆가리마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1948-1949년경에는 머리가 짧아지고, 머리의 아랫부분에만 웨이브가 있는 세미업(semi-up)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제 2절 1950년대 사회 문화 및 헤어스타일

1. 1950년대 사회 문화

1) 1950년대 서양의 사회 문화

전후 세계는 전쟁시의 동맹과는 관계없이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이념을 사이에 둔 냉전체제가 되었다. 유럽은 국제 사회에서 2류 국가로 물러났으나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때는 미국의 우위성이 확립되던 시기로 과학과 기술의 도약적 발전으로 풍요와 번영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문화적 면에서도 미국이 세계를 리드하게 되었다. 가정용 전자제품과 자동차 산업은 역사상 가장 큰 호황을 이루고 있었고 특히 텔레비전의 보급으로 시청자들의 안목을 키워가는 반면 비판력도 길러져 대중의 미적 감각이 향상되어 영상매체에 출연하는 이들의 옷과 헤어스타일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또한 풍요의 시대에 젊은이들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축음기, 레코드, 트랜지스터 라디오, 소프트 드링크 등이 잘 팔려

14) 나윤영, 한국여성의 헤어스타일 변천에 관한연구, 호남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p42~43

나가게 하는 경향을 가져왔다. 광고주들은 이들을 위한 상품을 개발하게 되었고, 록큰록과 트위스트, 새로운 비어들과 같은 그들만의 문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때 유명한 가수로는 척 베리(Chuck Berry)와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가 있었다. 미국의 이러한 팝(pop)문화와 영화예술 등은 특히 미국적 문화로서 세계에 영향을 미쳤는데 순수예술의 분야에서도 이때부터 미국의 역할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경제적 풍요 속에는 ‘획일화’와 ‘동질화’의 양상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구성원 개개인은 집단윤리와 소속감을 강요하는 거대 조직사회의 한 부속으로 전락하고 있었다. 즉 20세기가 표방한 모더니즘(modernism)은 기능주의를 기반으로 했기에 개인의 개성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기능위주로 단순화, 기계화, 획일화, 동질화시켰다.

그러므로 이런 모더니즘의 기계적 사고에 대한 반항적 조류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모든 얽매임에 대한 거부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망과 실재를 도피적 방법으로 추구하는 비트족(Beats : 1950년대 학계와 지식층에 나타난 집단으로 재즈와 블루스에 대한 사랑, 흑인 속어사용, 마리화나 피우기와 섹스, 동양 종교에 대한 관심 등을 나타내었고 비트스타일의 의복은 거의가 검정색으로 구성되었다. 미국대학을 중심으로 나온 이들의 생활은 후에 히피족의 표본이 되었다.)이 한 예이다. 이것은 기능성을 위주로 한 기계적 획일성, 동질성의 모더니즘을 탈피하여 개성의 자유를 찾고자 한 움직임이었다.

앨빈 토플러의 저서인 ‘제 3의 물결’에서는 우리가 현재 일렉트로닉스와 컴퓨터 시대인 제 3의 물결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¹⁵⁾ 이 제 3의 물결은 고도의 과학기술에 의존하면서 반산업주의적인 특성을 가지며 새로운 문명의 창조와 더불어 의식구조를 변화시키게 되었다. 다종다양하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 마이콤 기술에 의한 다품종 소량생산의 새로운 생산방식과 가족제도, 탈 획일화의 미디어등의 영향으로 제 2의 물결의 사회의 특징인 규격화, 분업화, 동시화, 집중화, 극대화, 중앙집권화와는 다른 개성의 존중, 다양화 가족중심등의 새로운 생활방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제 3의 물결은 1970년대부터 특징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나 195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즉 탈 모더니즘으로의 움직임이 시작 된 것이다.

15) 앨빈 토플러, 제3의 물결, 전희직역, 서울, 해원출판사, 1994

2) 1950년대 한국의 사회 문화

1950년대 우리 나라는 해방직후의 혼란스러웠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각분야에 점차 질서가 잡혀서 다소 안정된 생활을 하려던 차 비극적인 6·25동란을 당하여 다시 사회가 혼란해지고 우리 문화전체를 잃게 되었다.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 전쟁은 새로운 질서를 위한 혼동이며 진통이었다.

한국 전쟁은 한국에서 진행되었지만 서방 진영과 공산 진영이 서로 힘을 겨룬 냉전시대의 산물로 엄청난 소모전이었으며, 6·25동란으로 인한 엄청난 현실이 극심한 가치관의 혼란을 낳았다.

3년동안 계속된 전쟁은 휴전 협정으로 끝났으나 여태껏 남자에만 의존하던 여성들도 직업전선에 나가게 되었고, 이 시기를 전후해서 정비석의 “자유부인”(1954년)이 베스트셀러로 등장하여 변혁기의 새로운 화제를 낳았다. 이렇듯 전쟁 후 한국사회는 미군이 남한에 진주한 후 군정을 통하여 미국 교육제도의 도입, 미국적인 민주정치 제도의 도입에 의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영향력을 크게 받아 해방의 물결이 들어닥쳤으며 혼정거리는 사회는 각종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1950년대 한국사회는 해방이후 60년대까지는 전통적인 정치 및 경제관계의 혼돈 상태와 더불어 전통적 사회구조의 해이와 변동, 문화구조의 변동에 따른 전통적 가치지향도 흔들리게 됨으로써 가족의 지배적 문화구조는 사회적 통합의 정통성의 기능을 상실하여 아노미(anomie)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¹⁶⁾

2. 1950년대 헤어스타일

1) 195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

50년대의 헤어스타일은 긴 머리, 짧은 머리, 염색 머리, 가발 등 다양하였다. 머리모양은 점점 중요해져 갔고 머리모양을 바꾸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였다. 1950년 2월 머리 염색에서 큰 발전이 있어 탈색과 샴푸, 그리고 영구 염색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금발, 은

16) 전선정의, 전개서, pp.328~329.

발, 붉은 머리, 푸른 티트 등의 줄무늬 염색을 하게 되었다. 또한 여성들은 수성 염료를 사용하여 신발이나 의복, 액세서리에 어울리는 일시적 줄무늬 염색을 하였으며 이것은 여름에 특히 유행하였다. 여배우들이 많이 이용한 점액으로 된 액상 염료 스프레이로 실용적이고 일시적인 색상 변화도 가능하게 되었다.

Life 지에 의하면 “짧은 싱글(shingle)에서 시농으로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머리는 유행을 따라갈 만큼 빨리 자라지 않으므로 가발을 이용하게 되었으며 염색의 발달로 머리 색상이 더욱 자연스러워지고 사회적으로 여성의 염색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하였고 1951년에는 다섯명 중에 한 명은 염색을 하였다.“고 하였다.

1952년 12월에 Mc Calls은 또한 이렇게 말했다. “금줄 염색은 갈색, 짙은 금발, 빨간 머리에 극단적인 액센트를 주고 관자놀이 부위의 컬에 액센트를 주고 웨이브에 하이라이트를 준다. 이 염색약은 액상으로 되어 있고 브러시를 사용하여 칠하며 다음 샴푸때에 씻겨져 나간다. 이 줄 염색은 검정이나 은발 머리를 정돈되게 보이게 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게 하며 금, 은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보이게 하고 스프레이 타입을 사용하면 빗질하거나 샴푸할 때 제거할 수 있다.” 1954년 Life지는 “15가지 톤의 머리색이 있고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이 있다.”고 하였다.

1953년에는 스포츠식 짧은 샹기커트가 이탈리아에서 선보이면 바로 미국에서 유행하였다. 이탈리아 커트는 털 복숭이 같으나 정수리에 조각처럼 깊은 웨이브가 있고 앞머리는 컬로 돌렸으며 푸들처럼 계속적인 손질이 필요하였다.

1954년에는 헝클어진 머리 스타일에 변화를 주기 위해 플라스틱이나 금속 밴드로 앞머리를 밀어 올리고 뒷머리는 볼륨 감을 주도록 부풀리는 스타일을 하였으나 짧은 머리는 여전히 유행하였다. 17)

1955년에는 엠파이어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조셉핀 스타일(Josephine style) 처럼 길고 컬이 있는 머리가 유행했다. 1956년에는 부풀린 머리 스타일이 나타났으며 머리 길이는 8-10인치 정도였고 양 옆에 뺨치도록 하여 스프레이로 고정시켰다. 새로운 이 헤어스타일로 인해 모자의 사용이 줄어들었으나 그 대신 보석이나 깃털로 장식하였다. 1957년에

17) Nathalie chahine, 100 ANS ED BEAUTE, Editions Atlas S.A., paris, 1996, p.34

는 많은 소녀들이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앞머리를 덩불처럼 만들었고 50년대 말에는 높게 부풀린 꿀벌통 모양의 머리가 유행하였는데 이 머리는 백 코밍으로 높게 만드는 것이다.

2) 195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

1950년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인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모두들 피난길에 올랐고 유엔군이 우리 나라에 주둔하게 되자 패션 풍속도가 새롭게 전개되어 양부인들의 웨이브가 강한 컬의 퍼머넌트 웨이브 스타일, 빨간 입술연지, 빨간 매니큐어의 손톱 등 이국적인 풍경이 일반 여성들 사이에도 퍼져나갔다.

파마머리의 유행은 6.25동란 중에도 계속되었으나 평범한 스타일이었으며, 전쟁후 사회가 안정됨에 따라 여성의 의복과 함께 머리모양도 점차 다양해져서 계절이나 연령에 따라 여러 가지가 소개되었다.

1951-1952년에는 푸들 스타일(puddle style)이 등장하였고, 1953년에는 아주 스포티한 느낌의 짧은 머리인 이탈리아인 보이(Italian boy)라는 서구 스타일이 유입되기도 했다. 1954년에는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의 헵번형(숏컷)스타일로 이후 3-4년간 유행되었다.

1955년에는 포니테일(pony tail : 말꼬리 모양) 스타일이 어려보이게 하는 장점으로 긴 S자형의 웨이브가 특징인 로맨스 스타일(Romance style)과 귀를 덮은 중단발의 지극히 여성스러운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1958년에는 짧은 머리가 줄어들고 긴 머리모양이 많아지면서 웨이브를 이용한 스타일이 보이는데 머리에 양감(量感)을 주는 스타일이다. 이후 머리의 양감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1959년에는 스완 라인(swan line)형이 인기가 있었고, 1960년에도 이와 비슷한 프린세스 스타일(princess style)이 유행했다.¹⁸⁾

1950년대의 머리모양은 외국영화 배우들의 모습에서 모방된 것이 많았고, 신분과 잡지에 소개되는 많은 정보로 인해 하나의 스타일이 등장하면 획일적으로 유행하면서 모방되어졌다. 50년대에는 이미 아이론(Iron;고데기)이 사용되기 시작되어서 열로 변성(變性)을 주어 웨이브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후반기에는 미장원 수가 많아졌다.

이러한 퍼머넌트 웨이브 스타일은 점점 더 다양해져 1950년의 한 여

18) 유수경, 한국여성양장변천사, 서울, 일지사, pp306~307

성 잡지에는 최신 유행의 12가지 스타일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여기에 나온 헤어스타일을 보면 대개 원가르마에 머리끝 부분에만 굽은 웨이브를 한 것으로 단발 정도의 길이에 웨이브를 안으로 만 것이 더 많았다. 또한 연령에 맞추어 헤어스타일을 선택할 것을 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 잡지와 영화의 영향으로 우리 나라 헤어스타일도 서양 양식이 되었는데 1950년대 후반 우리 나라에 영화관이 여러 곳에 신축되면서 여성들은 영화에 의해 외국의 패션을 친근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1953년 7월에 윌리엄 와일러(William Wyler)가 감독하고 오드리 햅번(Audrey Hepburn)이 주연한 ‘로마의 휴일’이 상영되자 그녀가 하고 있던 이탈리아인 보이런 헤어스타일이 햅번 스타일(hepburn style)이라 불리며 전세계 헤어스타일에 유행을 불러 일으켰으며, 스잔 헤이워드(Suzanne Hayward), 리타 헤이워스(Rita Hayworth)의 웨이브진 긴 헤어스타일도 유행하였다. 이 스타일들은 우리 나라에도 들어와 젊은 여성이나 여대생들이 많이 따라 하였다.

특히, 햅번 스타일은 뒷머리가 짧은 쇼트 스타일(short style)이어서 뒷머리 모양으로는 남녀 구별이 안되어서 ‘꽂지 빠진 할미새’라는 비꼬는 말이 나오기도 하였다.

1950년대 중반 전쟁이 끝나고 사회가 안정됨에 따라 헤어스타일도 다양해졌는데 퍼머넌트 웨이브 스타일의 유행은 계속되었고, 가장 유행했던 헤어 스타일로는 목단가루, 안말음, 바깥말음, 우에브가루 등이 있었다.

목단가루는 컬을 말아서 머리에 얹고 망을 씌운 스타일로서 그 당시 여성들의 우아함을 돋보이게 하였고, 우에브 가루는 가장 유행했던 스타일로서 여성미를 더해 주었는데 일자 단발에 웨이브를 준 스타일이나 지라시 등이 많았다.

1950년대 인기 있었던 헤어스타일을 연도 별로 살펴보면, 1951년부터 1952년에는 푸들 스타일이 등장하였고, 덕크테일 스타일(duck tail style)의 동양적 실루엣이 감돈다는 이유로 환영받았는데 이것은 옆머리가 위로 치켜지며 뒤 중앙에서 오리 꼬리 모양으로 아물어지는 형태였다.

1955년에는 포니테일 스타일의 긴 머리가 젊은 층에 유행하였는데 이 말꼬리 모양의 머리는 앳되게 보이는 장점이 있어 환영받았다.

1956년에는 로맨스 스타일(romance style)이 인기가 있었는데 S자형의 웨이브를 만들어 귀를 덮고 양감을 주는 스타일이고 특히 이탈리아 보이 스타일(Italanan boy style)이라는 짧고 발랄한 느낌의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헵번이 하고 있었던 보이쉬(boyish)한 짧은 머리는 당시 긴 머리에 앞이마를 내놓고 머리형에 익숙해 있던 여성들에게는 감쪽하며 활동적인 스타일이었다.

1959년에는 스완라인이라 하여 머리의 양이 적어지고 굵은 웨이브의 부드럽고 로맨틱(romantic)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스타일이 인기 있었다.

또한, 아이론이 일반화되어 퍼머넌트 웨이브 스타일 혹은 생 머리에 불로 달군 아이론으로 머리를 펴거나 굵은 웨이브를 주어 손질하였다. 젊은 여성들 사이에 어깨 정도 길이의 긴 머리 유행에서 1950년대 후반으로 올수록 짧은 머리의 여성이 점차 늘어났다.¹⁹⁾

제3절 1960년대 사회 문화 및 헤어스타일

1. 1960년대 사회문화

1) 1960년대 서양의 사회 문화

또한 1960년대 들어 케네디 대통령은 ‘새로운 개척정신’이란 구호 아래 청년 평화 봉사단을 세계로 파견하고 아폴로 계획과 지역 개발 사업, 빈민 구제 사업을 실시하고 양극체제에서 벗어나 우호 방향으로 전환하려 했고 세계경제는 1970년대 초까지 계속 성장하여 호황을 맞이하였다.

2차대전 후에 ‘베이비 붐’을 이루며 태어난 세대가 1960년대에는 청년으로 성장하여 전체인구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들이 고등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얻어 경제적으로 독립하면서 커다란 힘의 집단을 형성하였다. 특히 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젊은이들의 문화는 절정에 이르러, 1960년대에는 젊은이의 시기로 지칭되며 독특한 청년문화

19) 김춘득, 전계서, pp.205~206

를 형성하였다. 영국의 비틀즈(Beatles)와 롤링 스톤즈(Rolling Stones)는 젊은이들의 우상이었고, 복식도 영패션(young fashion)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 때 이런 자유화 바람을 타고 미국은 흑인 민권운동과 빈곤에 대한 전쟁 그리고 월남전 개입에 대한 반전 여론이 일어나고 있었다.

즉, 대학생들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이 불평등하고 억압적이며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하고 참여 민주주의와 무정부주의를 지향하는 성격의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크게 신 좌파와 히피(Hippie)의 두 파로 나뉘었다. 신 좌파가 기존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혁명적 서향을 띄었던데 반해, 히피는 기존체제에서 이탈해 버리는 방안을 취했다.

히피문화는 ‘사랑’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기에 동양의 신비주의 종교나 선불교, 기독교의 극단적 원론주의 등 신비주의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려 했다. 그들은 기계적 사회의 합리성, 획일성을 거부하고 개인의 본능과 잠재력이 완전히 해방된 상태에서 진정한 자아의 생활과 쾌락을 추구할 것을 촉구하였다.²⁰⁾

또한 그들은 직업을 버리고 재산, 애정, 자녀를 공유하며 자급자족을 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 직업을 벗어난 이상 도시에 머물 이유가 없는 이들은 자연회귀 본능에 따라 순수한 자연생활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서 마약복용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무척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런 급진적 학생 연합운동은 흑인 해방운동과 연결되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자유와 평등의 추구를 강조하는 민주주의 바람은 흑인의 민권에 대한 관심도 가져오게 했다. 그래서 결국 민권법과 참정권법이 제정되어 흑인의 정치적 평등이 어느 정도 달성하게 되었고, 1954년 미국 대법원은 1896년부터 실시되던 ‘흑백분리법은 위헌이다’라는 역사적 판결을 내린다.

그 이후로 1955년부터 10년 동안은 흑인들의 민권운동이 무척 활발하게 일어나던 시기였다. 이때 흑인의 지도자로서 등장한 사람은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주장한 마틴 루터 킹(Martin Lutter King)목사와 폭력노선을 채택한 말콤 엑스(Malclom X)였다. 처음에 흑인들은 킹목사의 비폭력 노선을 따랐으나 곧 이것의 한계성을 깨닫게 되었고 말콤 엑스를

20) Hector Obaik.Les Movement de Mode (Paris:Robert Laffant,p219

위주로 한 급진적 흑인운동가들은 백인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흑인의 완전한 독립 국가를 가지려는 흑인 민족주의(Black Nationalism)를 내세우게 되었다. 그래서 흑인들은 우선 자신들의 인종적, 문화적 고유성을 찾고 그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흑인의 검은 피부색이나 그들의 독특한 아프로(Afro)머리를 아름다운 것으로 찬양하였다.

유럽도 60년대는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안정을 누리던 때였으나 소수 상류층에 부의 집중이 커 비판적 지식인들은 표면적 번영과 합의하에 경제적 이념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개인이 자기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건설을 욕하였다. 반핵운동과 실존주의 철학이 이때 나온 것이며 인간은 도덕적 결단으로 자신의 존재를 천명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유럽에서 이러한 권위에 대한 도전은 이탈리아 대학을 시작으로 각 국가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때는 전후 베이비 붐 세대가 청년이 되는 시기였으므로 사회에서 청년들의 비율이 컸고 이에 따라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던 시기였으므로 이러한 운동은 사회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²¹⁾

2) 1960년대 한국의 사회 문화

1960년의 4·19혁명과 1961년의 5·16 군사쿠데타는 사회전반에 걸친 급격한 변혁을 가져왔다.

1960년대에는 사회의 각 차원에 서구의 새로운 과학기술이 도입되었고, 교통 및 통신의 확대와 이에 따른 도시화의 촉진 그리고 대중매체의 대량보급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대중매체의 대량 보급은 서구문화와의 접촉기회를 늘어 주었고 이는 국민들의 의식주 및 언어생활 등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왔다. 이 시기에 있어 우리 나라의 복식은 세계무대를 향해 발돋움하던 시대였다.

새롭게 추진된 경제 정책들은 선진국과의 경제유대는 물론 문화교류의 폭을 넓혔고 패션 가에도 풍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로의 진출도 현저해졌다. 로케트와 전자과학이 절정으로 치닫기 시작한 사회의 반영으로 젊은 꾸뛰르에(couturier)들의 패션도 폭발적인 혁신

21) David Bond 20세기 패션, 정현숙역, 서울, 경춘사, p192

변화를 가져왔으나 한편으로는 메커니즘(mechanism)에 대한 반발현상으로 인간성 회복을 위해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였다.

TV의 보급 증가로 여성들은 TV 출연자들의 의상에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 당시 방송 내용이 서구적인 것에 편중되어 있어서 의복은 대부분 양장이었고 이것은 일상복으로 양장착용을 가속화시켰다. 양장생활이 보급되자 1960년대 중반부터는 의복 유행에 민감한 반응이 보여졌고 계절에 따라 발표되는 서양의 컬렉션(collection)에 관심을 가지고 신문, 잡지, TV등을 통해 서양의 작품들이 본격적으로 직수입되기에 이르렀다.

2. 1960년대 헤어스타일

1) 196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

1960년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머리 모양이 등장하였다. 머리를 길게 기르거나 짧게 자르고 뒤로 빗어 올리거나 부드럽게 바람에 날리는 모양을 하고 땡거나 다발로 묶는 등 다양한 스타일로 개성을 살렸다. 일반적으로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으며 작은 컬과 웨이브는 사라졌다. 여성들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자신의 성향을 따랐으며 더 이상 set style을 하지 않았다. 또한 가발을 사용하거나 염색을 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1962년에는 디자인된 가발을 이용한 헤어스타일이 나타났다는데 이것은 원자폭탄이 폭발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까지 유행을 하였는데 흑인사회의 민족적 자긍심의 발로로 흑인 조상에 긍지를 갖고 인종 차별에 대한 투쟁정신을 반영한 사회적 배경에서 나타난 것이다.²²⁾ 또한 뒤로 땡거나 양옆에 묶고 리본 장식을 한 소녀 스타일의 머리도 유행하였다. 이렇게 1960년대의 머리 모양은 의복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형태가 시도되었고 인종 문제나 전쟁,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의 반영으로 나타났다.

2) 196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

1960년대는 머리모양의 변화가 가장 심하였다. 커트 기술의 향상과

22) David bond, Glamour in fashion Guinness publishing, 1992, p.15.

다양화로 커트형의 머리모양이 유행되었는데 1961년에는 세슬(cecil)커트, 1962년에는 언발란스(unbalance) 스타일이 등장하였다. 1964년에는 업 스타일(up style)이 대부분의 부인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다. 또한 63-64년에는 보브스타일(단발머리)이 유행하였다. 1965년경부터는 가발 붐이 일기 시작하였는데 머리모양을 얼굴형과 옷차림에 맞춰 개성 있게 선택함으로써 더욱 세련되게 멋을 낼 수 있었으며, 1966년에는 아주 짧은 머리형이 많았다. 1967년에는 동양인의 큰 얼굴과 빈약한 뒤통수에 조형미를 나타내는 기하학적 헤어 커팅이 많았다.

1960년대 초에는 앞머리 부위와 귀 양옆에 높이를 준 부푼 양감의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앞의 높이, 양옆의 부풀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 듀오라인(duo line)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헤어스타일은 프랑스 미용 고등조합에서 발표한 작품이었다.

이 헤어스타일은 발표되자마자 곧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었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다. 이 듀오 라인은 전두부 부분을 높게 올린 멋스러운 헤어 라인(hair line)으로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스타일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헤어스타일이 단발머리 모양이나 바가지를 얹어 놓은 것 같다해서 바가지 스타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바가지 스타일이나 백조 라인의 스타일은 미용 용어로는 일명 크라운 붐 베지(crown bombe) 스타일이라 하였는데, 이는 두정부(頭頂部)에 볼륨(volume)이 있고 부풀어 있는 모양에서 나온 말이었다. 갖가지 기술을 사용하여 여러 형태로 정수리를 부풀렸고 스트레이트한 업 스타일(straight up style)도 유행하였다.

1961년에는 영화 ‘슬픔이여 안녕’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소설 속의 주인공 세실 역을 맡아 열연한 진 세바크가 남자처럼 짧게 커트한 보이시(boyish)한 헤어스타일로 귀여운 사춘기적인 소녀 스타일을 선보였는데, 이 짧은 쇼트의 머리가 일명 세실 커트라 불리며 젊은 여성들 사이에 유행하였다. 1962년에는 언발란스 스타일(unbalance style)이 등장하였고, 로켓트 라인(rocket line)이라는 귀 양끝이 뾰족하게 뻗치는 커트가 유행하였다.

1964년 여자 대학가에서 불 퍼머넌트 웨이브 헤어스타일을 하였고, 대부분의 부인들 사이에서는 업 스타일이 유행하였으며 1960년대 초에는 아이론에 금박지를 싸서 머리카락에 힘을 주고 롤(roll)을 사용하여 웨이브를 만들었다. 1963년부터 1964년에는 보브 스타일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1965년경부터는 가발(假髮)붐이 일기 시작하였는데 헤어스타일을 얼굴형과 옷차림에 맞춰 개성 있게 선택함으로써 더욱 세련되게 멋을 낼 수 있었으며, 1966년에는 남자처럼 아주 짧은 헤어스타일이 많았다. 1967년에는 기하학적인 선을 이용하여 동양인의 특징인 커다란 얼굴과 빈약한 뒤통수를 살려 조형미를 나타내는 기하학적 헤어 커트, 즉 여러 층으로 잘라내는 것이 많았다.²³⁾

우리 나라에 세어는 1968년 가수 윤복희에 의해 소개 되었고, 이는 직장 여성이나 학구파 신여성에게 간편하고 손질하기 쉬운 헤어스타일로 널리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헤어스타일은 단발로 자르고 바리칸트(bariquant)이나 면도기로 정리한 상고 단발인데 뒷부분을 둥글게 단차를 두면 보기 좋았다.

이 당시 대표적인 웨이브의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중 하나는 중간 기장의 머리에 웨이브를 안으로 만 안말음이고 다른 하나는 밖으로 웨이브를 만 바깥말음 이었다.

이러한 부푼 형태의 유행은 양장이나 한복을 입고 올림 머리 스타일을 함으로써 우아하고 고전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아이론을 사용해서 머리의 형을 살림으로써 장식적인 꺾을 만들고 액센트(accent)나 긴 머리 가발을 장식하는 이것이 현대 드라이(dryer)의 시초가 되었다.

제4절 1970년대 사회 문화 및 헤어스타일

1.1970년대 사회문화

1) 1970년대 서양의 사회 문화

1960년대의 항의와 폭력은 70년대에 이르러 질서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1973년 석유파동과 재정적자는 세계를 동요하게 했고 범죄, 마약, 낙태, 동성연애, 음란예술등 부도덕한 행위가 성행하게 되었다.

1970년대 중요 시대사조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운동과 여성운동의 확산이다.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한 생활

23) 전선정의3명,전계서(2001)p343

양식을 표방하게 하여 의식주를 간소화시켰으며 건강식품이 잘 팔리고 식이요법, 조강이 성행하였다. 또한 여성운동의 확산으로 여자들이 과거에는 남자들만의 직종이었던 분야에 뛰어 들어 남자들과 경쟁하면서 일반직과 전문직에 종사하게 되었으므로 경쟁사회에서 활동하는데 편리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유행하였다.

이와 달리 베비스 힐리어는 70년대에 나타난 양식을 두 가지 조류로 들었다. 첫째는 반도회 운동이고, 또 하나는 고도의 하이 테크니컬 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였다. 그러나 이 두 흐름 이외에 전원풍도 하이 테크니컬 한 것도 아닌 윤리적이지 못한 통속물이 크게 유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흐름은 ‘펑크’라는 과격하고 저속한 양식을 낳기도 했는데 전통에 구애받지 않는 창조성, 자기만의 강렬한 메시지를 나타내는 이러한 반모드는 젊은이에게 급속하게 퍼져, 70년대 후반 새로운 스트리트 패션을 창조해 내었다.²⁴⁾

펑크란 원래 속어로 ‘시시한 바람, 재미없는 것, 불량 소년, 소녀, 풋내기’ 등의 의미이다. 이런 펑크는 히피들이 약이나 환상적 음악 속에 빠져들으로써 세상의 추함을 회피하려는 반면, 도시의 게릴라를 표방하면서 세상의 추함을 더욱 확대시킨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다.

1970년대의 영국의 젊은이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경제적인 불황 속에서 상당수가 실업자가 되어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실업의 증가와 암울한 미래, 자신들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회에 대한 반항, 분노, 좌절을 젊은이들은 무정부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인 펑크와 같은 험오스런 복장과 머리형태를 하고 다니면서 표출하게 되었다.²⁵⁾

펑크의 원류를 영국의 역사에서 찾아보면 기원전 7세기경 로마인들이 영국에 침범해 들어왔을때 담모니(Damnonii),두로트리지(Durotriges), 브리간트(Brigante), 도부니(Dobuni), 크리타니(Critani)같은 영국의 전통 부족들은 온몸에 문신을 새긴다거나 금 장신구, 그리고 긴 수염 등을 하면서 침략자들을 놀라게 함으로써 그들의 반항의식을 표현했는데, 이것을 1970년대 영국 젊은이들이 받아들여 그들도 이상한 복장을 함으로써 비탄력적인 사회에 대한 반항을 한 것이었다.

24) Bevis Hillier (1933).20세기의 양식,조규화역,서울,수학사,pp264~265

25) 조규화,복식미학,서울,경춘사,1995,p623

2) 1970년대 한국의 사회 문화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군사정권체제는 국제적으로나 남북문제에서, 그리고 국내문제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월남전 여파로 국내의 반전 분위기가 고양되었고 막대한 군사비 투입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한반도에서는 감군을 논의하는 등 세계전략 및 한반도 전략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국내적으로는 심한 인플레이션(inflation)과 지속적인 국제수지의 악화 및 경기 침체에 시달렸다.

또한 1970년대 초에는 석유 파동과 국제 고금리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했었으나 이때 중동의 건설 붐이 일어 외환위기를 극복하게 하였고 1973년 이후 1차 석유 파동과 중화학 공업의 비효율 문제를 극복하였으며 따라서 경제 개발계획의 공업화와 양적 성장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국민소득수준의 상승에 따라 구매력이 증대되었고, 소비지출이 크게 늘어남과 동시에 소비양태도 변화하였는데, 예를 들어 레저(leisure)와 레저산업의 개념이 차츰 등장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다.

1970년대 후반에는 경제가 고도성장기로 접어들면서 아파트 붐, 부동산 투기, 핵가족 시대로 접어들어 갔고 산업사회로서의 변화된 모습은 보다 편리하고 개성적인 삶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전통적 가치의 상실, 상대적 박탈감의 증대 등의 부정적 측면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긴장과 혼동의 증대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또한 1970년대초 특기할 만한 변화로 도시화와 노동인구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급속한 도시화는 많은 농민층이 도시로 유입되어 도시의 노동계층을 형성하게 하였고 이들은 1970년대 초에 들어 부(富)의 분배와 참여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2. 1970년대 헤어스타일

1) 197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

70년대 스타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갱 패션으로부터 하이 패션이 이르기까지 펑크 스타일 의복과 헤어스타일이 유행한 것이다.

모토 바이킹 외형을 한 펑크족들은 지옥의 사자처럼 머리를 스파이크하게 하고 빨강, 초록, 노랑, 파랑 등으로 염색하고 머리 뿌리 부분을 검게 남겨두고 끝만 밝은 금발로 탈색하였다. 이러한 호트리진 헤어스타일은 80년대 초 거리에서 펑크스타일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유행하였고 점차 머리를 자르고 밝게 염색하거나 일차색상으로 줄무늬 염색을 하였다.

비달사순팀은 실험적이고 완벽한 테크닉에 의한 헤어스타일과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헤어스타일 역사에 이정표를 만들었다.

비달사순의 헤어스타일은 세팅을 하지 않고도 근사하게 보일 수 있으며 고전적 미적 감각을 도입한 형태였다. 이 퍼머와 커트의 본질은 아프로에 의해서 영감을 받았는데 비달사순은 할렘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흑인들의 자연스러운 머리를 보고 백인들에게도 같은 자연스러운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연구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퍼머 기술의 혁신 뿐 아니라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커팅의 기본 테크닉을 연구하였다. 왜냐하면 아무리 퍼머를 잘 하여도 그 형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합한 커팅 기술이 없이는 어렵기 때문이었다. 많은 신문들이 이 새로운 스타일에 대해 경이와 비판을 가하였으나 여성들은 비달사순의 새로운 스타일이 머리를 잘 손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비달사순이 당시의 문화, 경제, 정치, 패션을 간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그 당시의 패션은 경비 절감과 쉬운두발손질을 추구했던 것이다.

비달사순은 또한 이전의 여성들이 머리를 스타일하기 위해 모발을 혹사했던 것에 반대하고 모발의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그리하여 미장원에서는 모발관리를 해주고 손님들은 미장원에서 직접 모발관리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1주일에 한번씩 미장원에 들러 샴푸를 하던 여성들은 얼마나 자주 샴푸를 해야되는지 묻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곧 샴푸와 콘디셔너의 시대가 도래했고 비달사순의 헤어 제품은 1974년에는 미국의 전 미장원에 소개되었다.²⁶⁾

70년대는 모두가 머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고 ‘헤어’라는 뮤지컬은 아름답고 긴 머리의 아름다움을 격찬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고 비버리 힐즈의 이용사로 나오는 샴푸라는 영화가 나오기도 하

26) 이주연, 전계서, pp43~45.

였다. 커리샤기라는 헤어스타일은 70년대 후반의 모습을 활성화시켰다. 그것은 야성적인 펑크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는 뿌리퍼머를 탄생시켰다.

비달사순은 자연스런 움직임과 머리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커팅과 스타일링을 했고 물결치는 듯한 머리모양을 위해 퍼머와 염색을 했으며 모발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프로테인 제품을 사용했다. 비달사순의 모발 철학은 70년대의 관심과 방향에 일치하였다. 그의 철학은 커팅시 모델의 두상 골격 구조나 모델의 신체 프로포션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조화되는 헤어스타일을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곧 기능적인 아름다움을 위한 열정이었다.²⁷⁾ 그는 또한 과학적 모발 연구를 계속하여 싸롱에 마이크로 스코프를 설치하여 모발 구조의 손상을 관찰하였고 모탄성을 관찰하기 위한 또 다른 기구를 설치했다. 언론에서는 ‘머리의 선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비달사순은 머리에 관한 모든 것은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고 하였다.

1973년 화학자들과 공동 연구하여 헤어 전문제품 라인을 발표했다. 그것은 세발용 샴푸, 컨디션용 프로틴 리모이스처라이저, 보호용 피니싱 린스였다. 또한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을 위해 프로테인 팩 트리트먼트도 소개되었다.

비달사순은 “모발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좋은 형태의 커팅과 스타일링을 할 수 있고 건강상태가 나쁜 모발은 스타일링 하기 전에 커트 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적 신체적 건강과 모발 건강, 피부 건강은 직접적 관련이 있으며 머리는 우리의 신체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자신을 관리하는지를 나타낸다.” 고 하였다.

2) 197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

1970년대 초반의 머리모양은 앞머리를 변형한 계단식이 유행하였으며, 젊은 여성들은 간결하고 생동감 나는 상고머리 스타일(square-cut hair style)을 하였다. 1975년에는 전형적인 웨이브를 강조하는 간편한 단발모양이 유행하였고, 스트레이트 스타일과 웨이브 스타일이 대조를

27) Geogina Howell, In vogue, London : Ramdon House, 1975, p.109

이루었다.

1976년에는 짧은 머리가 새로운 스타일로 등장했으며, 1977년에는 콰이어 보이라는 청초한 느낌의 머리 모양이 유행하였다. 1978년에는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풍성한 머리모양 등이 유행하였고, 1979년에는 머리카락을 뿔아서 장식하는 디스코 머리모양이 유행하였다. 이렇게 1970년대 머리모양을 살펴보면 대체로 퍼머넌트와 커트법을 병용한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70년대는 우리 나라에서 커트의 개념이 긴 머리를 그냥 자른다는 개념에서 모발을 각도에 의해 나누어서 기하학적으로 자른다는 개념으로 완전히 바뀐 시기로 이러한 계기가 된 것은 기하학적인 커트를 창안한 비달 사순의 기법이 우리 나라에도 들어와 유행하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커트 스타일과는 다른, 각도에 의한 기하학적인 커트는 모발의 자연스런 흐름을 살린 새로운 경지의 커트였다.

1970년대 전반기는 커트 붐이 절정을 이루던 시기로 자연스러운 경향으로 제각기 진정한 개성화를 추구하는 시대로 접어든 시기였다.

이 때 유행한 대표적 헤어스타일로 쉼기 커트를 들 수 있는데 일명 거지 커트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이 커트는 뒷 목덜미 부위에 길게 유니폼 레이어(uniform layer)형으로 커트해 한동안 유행하였고, 젊은 여성들은 간결하고 생동감 있는 상고머리 스타일을 하였다.

블로우 드라이를 이용한 헤어스타일을 바람결 스타일이라고도 하였는데 유연하고 자연스런 머릿결의 움직임이 있는 가벼운 웨이브 스타일이었다.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은 얼굴형에 따른 디자인 커트와 그에 따른 퍼머넌트 스타일이 유행하였는데 퍼머넌트 웨이브 머리에 블로우 드라이를 하여 부드럽고 유연한 머릿결 스타일을 선호하였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활동 범위가 넓어져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는 간편한 스타일을 원하게 되자 그에 따른 퍼머넌트 웨이브 스타일이 나오게 되었는데 바디 퍼머넌트 웨이브는 자연스런 웨이브가 있는 퍼머넌트 웨이브가 그것으로 머리카락 끝에만 웨이브나 컬을 만들어 언뜻 보기에는 약간 웨이브 진 반곱슬처럼 보였다. 이 퍼머넌트 웨이브의 특징은 샴푸 후 스스로 손질하여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으로 젊은 여성들이 많이 하였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활동적인 젊은 여성들에게 버섯 모양의 머쉬룸

(mushroom)헤어스타일이 꾸준히 인기가 있었다. 이 스타일은 모발의 흐름이 중심에서 방사형으로 흘러서 옆이 넓게 되며 모발 끝이 안쪽을 향해서 모아진 스타일로 중세의 승려 스타일에서 시작하였는데 이 스타일은 간결한 실루엣을 기능성을 지니면서도 여자다움을 잃지 않는 디자인(design)성으로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다.²⁸⁾

이 머쉬룸 스타일과 반대되는 형으로 엄브렐라 스타일(umbrella style)이 있는데 이것은 우산을 편 모양의 실루엣으로 머리끝이 바깥쪽을 향하게 꺾을 한 스타일이었다.

1975년에는 전형적인 웨이브를 강조하는 간편한 단발머리의 유행과 함께 스트레이트 스타일과 웨이브 스타일이 대조를 이루었다. 1976년에는 짧은 머리가 새로운 스타일로 등장했으며, 1977년에는 콰이어 보이라는 청초한 느낌의 헤어스타일과 복고 스타일을 현대화한 헤어스타일, 웨이브가 많은 헤어스타일 등이 유행하였다.

1970년대 말 부터는 불균형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듯한 헤어스타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의 헤어스타일은 비탈 사순 커트의 기하학적이고 직선적인 가위의 커트로 여성미를 살려 만든 것이었는데 이 헤어스타일은 컬이 움직이는 듯한 스타일로 완전히 형에서 탈피하여 흐름대로 디자인 된 커트 스타일이었다. 콘케이브 커트는 정돈되지 않은 불균형적인 실루엣이긴 하나, 정면에서 보면 아주 경쾌한 흐름이 추가되는 스타일로 형보다는 모발의 흐름과 질감에 포인트를 준, 새롭고 신선한 감을 주는 스타일이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디스코(disco)머리는 콘케이브 커트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머리카락을 땅아서 장식하였다.

제5절 1980년대 사회 문화 및 헤어스타일

1.1980년대 사회문화

1) 1980년대 서양의 사회 문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화전반에 걸친 새로운 변화가 표면적으로 더욱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70년대에서 80년대로의 변화를 특징짓는

28) 나윤영, 전계서, pp47~48.

요소로서 조지나 호웰(Georgina Howell)은 ‘활동의 시대, 삶에 대한 의무와 책임, 신분상징, 부의 축적에 대한 관심, 육체에 대한 숭배, 쾌락주의와 향락주의, 개인주의, 무관심, 디자이너브랜드의 상표 출시, 헬스 및 미용에 의한 자기관리, 패스트푸드 음식’ 등으로 보았다.

한편 사회 제반 영역에서 계층간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수평적 대중 중심 사회구조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70년대 이후 예술 영역에서도 진리나 미를 추구하는 고전적인 가치체계 대신 다양성과 가변성이 수용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절대가치를 지향하는 中央집권적인 시각에서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수평적 지방주의가 자리잡히게 된 것이다.²⁹⁾

이와 같은 현상은 양식과 주제에 대하여 열려진 태도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모더니즘의 붕괴를 의미한다. 모더니즘 예술은 예술의 순수성이라는 절대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궁극 목표로 삼아 끊임없는 실험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합리주의와 과학기술이 유토피아를 가져올 것이라는 산업혁명 이후의 세계관의 반영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와 90년대 예술분야에서는 다양한 지역양식과 개인양식의 공존, 기존 미술의 차용과 변형, 대중매체의 형상과 방법의 수용등 다원화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모더니즘의 대안으로써 포스트 모더니즘(Post Modernism)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2) 1980년대 한국의 사회 문화

1980년대는 신 군부에 의한 강압정치로 사회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어야했고 1979년의 석유파동과 10·26 광주민주항쟁 등의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경제는 불황과 인플레이션을 맞게 되어 산업은 매우 심각하게 침체되었다.

이른바 우리 경제사상 최초로 성장, 안정 그리고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계획 성공의 대표적 사례로 부상하였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중화학 공업의 집중적인 투자는 1980년대에 와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경제는 정부의 지속적인 공업화 추진과 수출 증대 정책에 힘입어 양적 규모의 확대는 물론 질적 고도화가 추진되었다. 특히 노사분규 등으로 인해 소득이 급상승하면서 과소

29) 로버트 린튼, 20세기의 미술, 서울, 예경사, 1994, P383~388

비와 같은 현상이 대두되었고, 대외적으로 개방화와 자유화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수입이 급증하고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양화되어 그 수준이 부쩍 향상되었다. 반면 공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을 통해 물질 우선 만능주의 풍조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86 아시아 게임과 '88 올림픽의 개최로 패션산업은 더욱 활기를 띠었고 외국 유명상표의 국내 도입으로 다양한 패션이 등장하게 되었다. 국제적인 관심도 고조되어 한국 패션은 서구 패션의 모방 단계를 벗어나 우리의 독자적 모드를 정립하였고 서구 패션과 조화를 이루면서 패션모드의 국제화를 가져왔다.

2. 1980년대 헤어스타일

1) 198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

1988년에 고도로 발달된 트리트 먼트 제품이 등장하였다. 80년대의 스타일링 제품의 사용과 잦은 퍼머와 염색, 탈색 등으로 인해 더욱 손상된 모발은 프로테인이 첨가된 인텐시브 모이스춰 등의 나리싱 테라피에 의해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976년 동계올림픽에서 피겨 스케이팅 선수 Dorothy hamill이 한 웨이지 스타일은 그녀의 건강하고 빛나는 머리결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보여주었고 그 이후 전세계적으로 유행되었다.

웨이지는 윗쪽은 무거운 보브 형태이고 아래는 리지를 만들면서 짧게 깎여진 형태로 매우 공기 역학적인 스타일이며 선이 건축적이면서도 부드러워 보여 80년대의 전반적인 패션경향의 의복과 잘 어울렸다. 여자 운동선수들은 이 머리로 인해 포니테일이나 시뮬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난폭한 모히칸 헤어스타일이 점차 시들어가면서 또 다른 단순한 형태의 헤어스타일이 등장하였다. 또 직장여성의 증가로 이시기의 헤어스타일은 실용적으로 변화되었다. 웨이브진 머리는 귀뒤로 머리의 뒷부분으로 끌어올려 빗겨졌고 머리의 가장자리 높은 부분에서 타래머리로 모았고 앞이마에는 부드러운 웨이브진 머리가 흘러내려져 이 앞이마의 뱅이 대중화되었다.

또 앞머리를 한쪽으로 쓸어내린 비대칭형의 헤어스타일이 인기가 있었다. 강한 인상의 언밸런스한 모습으로 도전적인 느낌을 강조 했다. 앞

머리에서 옆머리로 이동을 하고 여성적인 느낌은 강하고 세련되게 연출하는 것이 포인트였다

2) 198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

1980년대의 서울에는 퍼머넌트의 종류가 특히 많았는데 기본형이라고 할 디자인 퍼머로부터 핀결(특히 앞머리 형태에서 웨이브를 굽고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퍼머) 부메랑(머리카락의 끝을 말린 형태로 그대로 늘어뜨리는 퍼머) 등 새로운 퍼머가 등장하였다. 가장 보편화된 디자인 퍼머는 굽기가 각기 다른 루프(머리말기)를 쓰는 재래식이다. 1984년 상반기부터 등장하여 인기를 얻은 스트레이트 퍼머는 문자 그대로 머리카락을 직선형으로 유지시키는 것인데 둥근 루프 대신 플라스틱 판을 사용하는 퍼머이다. 본드 형태의 퍼머약으로 머리카락을 플라스틱 판에 고정시켜 머리카락의 직모상태를 강화시키고 생머리가 처지고 달라붙기 쉬운 단점을 보완하였다.

80년대 초에는 짧게 자른 커트머리도 많이 나타났는데 특이한 형태로는 일명 '거지커트'라고 하는 커트 머리가 유행하였다. 1984년 후반기에는 단발머리인 보브스타일이 부쩍 인기를 끌었다. 내추럴 퍼머로 전체의 머리결은 생생하게 살리고 윗부분은 약간 핑크스타일로 처리하여 단발머리만의 단조로움을 커버해 주었으며, 10대의 소녀에서부터 40대의 중년부인에 이르기까지 연령에 구애받지 않은 대중적인 스타일이었다.

1985년 이후에는 1984년의 단발형의 생머리와 비대칭인 것, 중간길이 퍼머로 집약되던 스타일이 얼굴 전체를 드러내는 쪽보다는 마치 얼굴과 이마를 깃털로 감싸는 듯하게 보이는 스타일이 등장하였다. 또한 머리끝이 제각기 멋대로 바람에 흐트러져 화려한 듯하면서도 여성적인 느낌을 주지만 그런 분방함 속에서 부드러운 여성미를 함께 나타냈다.³⁰⁾

1986년에는 앞머리, 뒷머리, 옆머리 등 머리를 각 부분별로 나누어 서로 다른 종류의 퍼머로 자연스러운 멋을 낸 조합 퍼머라고 불리는 새 스타일이 서울에 등장하였다. 1983년경부터 유행하던 스트레이트 퍼머가 여름을 맞이하여 주춤하면서 드라이어 대신 조합 퍼머가 환영을 받

30) <http://www.women.or.kr/culture/clothes/history/hair3>

왔다.

또한 머리 결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웨이브에 탄력과 윤기를 더해 주는 모발 화장품인 무스(mousse)와 젤리(jelly)가 생산 보급됨으로써 조합 퍼머는 더욱 확산되었다. 무스를 이용한 헤어모드는 특히 1987년도 이후에 많이 나타났는데, 무스는 원하는 머리형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링 제품으로 남녀 청소년이나 성인 남성에게 이르기까지 사용이 널리 확장되었다. 이러한 제품은 사용 후 매일 머리를 감아 그 성분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모발이 상하고 탈모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1980년대에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개인의 취향도 감성화·다양화·개성화 되어 헤어스타일에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고감도의 개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시기였다. 1980년대 초에는 여대생이나 직장 여성을 중심으로 바리칸과 레이저(razor)를 병용한 커트인 펑크 헤어(punk hair)또는 디스코 머리 같은 중성적인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커트와 퍼머넌트 웨이브의 디자인이 다양해졌고 새 질감의 요구에 부응하는 최신 미용기구가 많이 나왔으며, 유행의 흐름을 보여주는 갖가지 패션가운데 헤어의 위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됨에 따라, 미용사의 감성과 감각이 빛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는 퍼머넌트 웨이브의 디자인이 다양해짐에 따라 컬에 실증이 난 젊은 여성들 사이에 스트레이트 퍼머넌트와 긴 머리에 살짝만 웨이브를 준 풀어헤친 듯한 퍼머넌트 웨이브가 함께 유행하였으며, 짧은 머리의 취향에서 차츰 여성적인 것을 찾기 위하여 세미 롱 단발 스타일이 나왔다. 이 스타일은 입체감이 없고 평면적인 우리 나라 여성에게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로 목 밑 부분을 무겁게 단발 스타일로 처리하고 머리 윗 부분을 커트 하여 전반적인 헤어스타일을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었다.

유행에 민감한 여성은 단발 스트레이트 헤어스타일을 주로 하였는데 중 단발 기장의 보브 스타일의 특징은 손질하기 쉽고, 기능적이며 아름답고 풍부한 움직임이 있어서 젊음과 여성적인 침착함을 반영할 수 있고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여성의 의식과도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후반에 걸쳐서는 헤어 무스(mousse)와 젤, 스프레

이 등의 헤어 스타일링(hair styling) 제품이 보급되어 이를 사용하여 헤어스타일을 연출하였다. 대표적인 스타일로 앞머리를 세우는 유행은, 세운 머리의 높이와 자존심이 비례한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는데 이러한 모습은 외국 여행 때에 한국 여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헤어스타일만 보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선풍적이었는데 일명 ‘자존심 머리’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이후 미용계도 빠른 속도로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개성을 추구하며 어떤 한 가지의 유행 스타일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스타일의 유행이 나오게 되었다.

머리의 길이도 다양한 길이의 스타일이 공존하면서 유행하였으며, 전문직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캐주얼 웨어(casual wear)가 다양하게 착용되었고, 헤어스타일은 가볍게 풀어헤친 듯한 긴 머리의 퍼머넌트 스타일과 스트레이트 퍼머넌트한 긴 머리가 함께 유행하였다. 중년층의 여성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길이든 굵게 퍼머넌트 웨이브 하여 컬이 두드러진 스타일을 선호하였으며 듀오 라인을 변형시켜 모발 끝을 가볍게 처리하고 목선 부분에 부드러운 느낌의 포인트를 준 스타일도 있었다.

또한 옆머리는 귀 위로 바깥 치켜서 자르고 뒷머리도 짧게 잘라 뒷쪽을 강조하는 도회적인 모습이 돋보이는 스타일과 기르거나 포니테일 형으로 묶는 등 여러 가지의 개성적이고 자유스런 헤어스타일이 나타났다.

1980년대 후반인 1989년부터 정수리 부위를 높이 세운 차분한 스트레이트 헤어와 끝말음이 우아한 세트 감각의 웨이브를 주는 보브 스타일이 서서히 등장하였다.

광복 이후 모발 염색을 해왔는데 1980년대에와 전반적인 모발 염색 보다는 일부분에 액센트(accent)를 스타일이나 대담한 색상의 모발 염색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모발 염색은 컬러 TV의 등장으로 사람들의 색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헤어 패션에 필수적인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또한 퍼머넌트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기본형의 퍼머넌트 웨이브부터, 핀컬 퍼머넌트 웨이브, 부메랑 퍼머넌트 웨이브(boomerang Permanent Wave wave)등 특수 로드를 이용한 퍼머넌트 웨이브가 성행하였다.

1980년대는 일부 연예인들의 우상화로 십대들의 모방 심리를 부추겨

패션이나 헤어스타일의 유행을 확산시켰다.

제6절 1990년대 사회 문화 및 헤어스타일

1. 1990년대 사회문화

1) 1990년대 서양의 사회 문화

1980년대 말에는 80년대 전반의 엄매인 듯한 신분 상징적인 권위가 점차 완화되면서 다양함과 개성이 더욱 중요시되는 다원화된 1990년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즉 현대와 탈 현대의 과도기적 위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적 문화 현상이 나타나, 비합리성과 전통성에의 회복, 다른 시대 다른 문화로부터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과거를 재현하는 듯한 복고적 분위기와 아프리카, 남미, 동구권 등 이국적이고 민속적인 감각의 등장은 현 사회의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변화와 그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또한 환경파괴와 생태계의 보존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 취임으로 인한 인종차별 폐지, 에티오피아의 흉년 등으로 제 3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이들에 대한 원조의 손길이 줄을 이었다.

소련 연방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다시 들어서면서 세계는 화해 무드로 들어섰으나 각 나라는 이념이 아닌, 서로의 경제적 관심을 위주로 연맹을 맺어 실리 위주의 사회가 되었다.

2) 1990년대 한국의 사회 문화

1970, 80년대의 눈부신 경제발전의 성과에 힘입어 1990년대는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을 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민주화에 따른 생활의 다원화로 급진전되고 있으며, 정보화사회의 진전으로 탈 산업 사회적 기초가 마련되고 국제교류의 팽창에 따른 국제 의식의 성장도 주목할 만한 연상으로 볼 수 있다.

1995년 3월 1일, 보도, 교양, 오락, 영화등 각 분야의 21개 전문채널

(channel)이 일제히 본 방송을 개시하자 전국 50개의 종합유선방송국은 케이블을 통해 각 가정에 이를 송신했다. 이 땅에 이른바 케이블 TV 시대의 막이 오른 것이다. 방송학자들은 케이블 TV가 출범한 1995년을 ‘방송혁명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케이블 TV나 방송계는 물론 우리 사회전반에 물고 올 변화가 그야말로 혁명적이기 때문이다. 케이블TV 전송망을 기본으로 하여 각 가정과 사무실의 TV, 컴퓨터, 전화 팩시밀리(facsimile)등이 하나로 연결되는 멀티미디어(multi-midia)시대에 들어서면서 생활패턴은 물론 우리의 의식구조까지 변화시켰다. 지금의 신세대를 ‘신세대’라는 고유명사가 불도록 한 1990년대 초의 사회적 조건의 하나로는 영상매체의 발달, 컴퓨터나 뉴미디어(new media)와 같은 새로운 첨단 기술매체의 영향, 그리고 무엇보다도 TV나 비디오(video)를 필두로 하는 대중매체의 확산과 이를 통한 대중상품의 일반화를 들 수 있다. 현대 여성들이 가꾸어 가는 아름다움은 [마담 피가로]가 보여주는 것처럼 전통적 가치관에 따른 매력이 재발견되었고, 여성의 권리를 되찾으면서 아름다움은 변화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 의식의 대상에서 벗어난 사회적인 존재가 되어 남성들과 경쟁하면서 끈기와 단호함을 키워 나가는 가치의 창조자요, 능동적인 존재가 되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목표가 된 아름다움은 직업을 얻는데 도움이 될 매력을 잊지 않는 활동적인 여성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었으며, 자신과 타인들에 대한 의무인 아름다움은 항상 빈틈없고 유능한 활력적인 여성의 모습들로 표현된다.

한편, 교육수준의 향상은 탈 물질적 생활관을 낳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인류의 보편적인 사회의식으로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예를 들어 지구환경보호, 인권 보호, 자유와 평등, 인류애적인 세계 시민의식 등을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써 긍정하는 태도를 널리 확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리적 환경적 지리적 귀속감도 크게 증대하고 있어 작게는 동호인 그룹에서 크게는 같은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사회적 단위가 새로운 일차적 생활공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물자의 생산과 분배보다는 문화적 정보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는 생활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2. 1990년대 헤어스타일

1) 199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

90년대의 직장 여성들은 많은 종류의 스타일을 착용하였고 70년대나 80년대처럼 성공적으로 보이기 위하여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기 위하여 착용하였다. 그들은 다양한 가격의 옷을 선택할 수 있었고 상류층 직장 여성들도 더 이상 남성적 수트의 모방만을 고집하지 않게 되었고 직장에 적합한 한도에서 충분히 여성스러움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바바라 부시 스타일은 새로운 가치관을 유행시켰으며, 이것은 낸시 레이건의 최고급 최신 유행 스타일과는 상반되는 편안하고 전통적인 스타일이었으며 그녀는 또한 인조 진주 목걸이로 유명하게 되었다.³¹⁾

1990년대 와서는 개인의 독창성이 중요시 되어서 의상에도 어떤 주된 라인이 없이 각자의 개성 표현에 맞게 선택하듯이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에도 의상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스타일이 선택되고 있다. 헤어컬러를 다양하게 변화를 주는 헤어 컬러링이 고도로 발달하여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헤어스타일은 현대에 와서 더욱 인가의 감성을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졌다.

2) 199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

90년대 헤어스타일은 60년대 복고무드를 통해 파생되었고 여성미, 웨이브, 커팅, 볼륨을 통해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로맨틱 보브(길고 짧은 앞머리를 자연스럽게 살려주고 뒤통수와 정수리에 볼륨을 주어 자유로운 변형의 멋을 준 스타일), 청순함을 보여주는 긴 단발, 보이시한 쇼트 커트 등이 있다. 93년도부터는 커팅퍼머가 유행하였는데 코팅퍼머는 머리카락에 염색과 퍼머를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머리에 색을 덧입혀서 보호하는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머리카락을 원래의 검정색에서 변화시켜 갈색, 와인 색으로 염색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그 외에도 94년에는 해초퍼머, 산소퍼머, 영양퍼머 등 자연스러운 웨이브와 함께 영양분을 공급 해주는 퍼머가 유행하였다.³²⁾

31) Elane Feldman in Decade 1990s, London: Batsford Ltd(1991), p.5

1990년대는 패션이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탈 유행의 시대라 불리울만큼 그 어느 시기보다도 특정한 스타일이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각자의 개성을 추구하는 풍조가 정착되는 시기이자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에 따른 헤어스타일이 정착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 1990년대의 헤어스타일을 특별히 무어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다.

1990년대 초에는 헤어스타일은 일반적으로 젊은 여성층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보브 스타일은 지금까지의 심플한 라인에서 탈피한 언밸런스 스타일(unbalanced style)의 변형된 단발이 유행의 주류를 이루었는데, 머리 길이에 있어서 길고 짧은 것의 어느 쪽에도 편중하지 않고 다양하게 유행하여 자연스런 경향이 계속되었다.

중간 길이의 모발을 1960년대 복고풍으로 돌아가 크라운 부위에 굵은 웨이브로 세트를 하거나 퍼머넌트 웨이브로 안말음, 바깥말음을 하여 둥글게 양감을 살리면서 앞부분은 스트레이트 하여 모발 끝을 여성적이며 부드럽고 낭만적인 로맨틱 보브 스타일(romantic bob style)을 하였다.

짧은 머리에 있어서는 얼굴 쪽으로 부드럽게 감싸서 모양을 내는 소프트 라인 커트(soft line cut)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이 커트는 정수리 부분에 볼륨을 주고 무스나 젤을 모발 끝에 발라 촉촉하게 윤기가 나도록 함으로써 깔끔하고 발랄한 이미지를 주었다.

이 때 헤어 커트는 복고풍과 무관하게 시저를 사용한 디자인 커트로 주로 레이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먼저 커트 가위로 스타일을 만든 다음 머리카락 끝 쪽에서 3~4cm 길이로부터 굵어 내리 듯이 레이저로 뽕족하게 하여 자유분방하고 불규칙한 느낌을 주는 개성 추구형 헤어 스타일이었다. 헤어 뒷부분에 꼬리를 남겨놓은 것과 같은 스타일이라든가 좌·우의 다른 머리 길이, 앞보다는 뒷부분의 헤어가 더 짧은 스타일이 유행하였는데 가볍게 보이는 스타일로 고정관념을 주기보다는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헤어스타일이었다.

긴 머리는 자연 그대로의 모발 상태를 살리거나 개인의 취향에 따라 퍼머넌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개발된 특수 로드³²⁾에 의해서 진행하게 되어 뉴 셋팅 퍼머넌트 웨이브나, 세미 퍼머넌트 웨이브를 하였는데 이는 세팅 기간이 기존의 스타일링 시간보다 짧으면서 혼자서도 간단하게 손질하기 쉬운 자연스러운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이로나 세트는

32) <http://www.women.or.kr/culture/clothes/history/hair3>

외면하였다. 앞이마를 시원스럽게 내 놓고 굽은 웨이브로 여성미를 강조한 스타일이 퍼머넨트 웨이브 부분에서는 주류를 이루었는데 여러 가지 헤어핀이나 헤어 밴드, 고무줄을 이용하여 느슨하기 묶어 주는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특히 유행의 중점은 차분하면서도 반항적이고 좀 건방진 듯한 스타일이었다. 또한 여성스러우면서도(feminine) 남자같이 옆머리를 구렛나루처럼 만들어 길고 부드럽게 늘어뜨리고 옆모습은 콘케이브 형태로 구부러진 옆 얼굴 쪽에 강한 선이 이채롭게 보이는 디자인과 얼핏보아서는 종전의 스타일과 비슷하지만 레이저를 사용했기 때문에 머리 끝 선과 전체의 분위기는 전혀 다른 디자인이었다.

1990년대 중반에는 1960년대 복고풍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1990년대에 어울리는 도시적인 세련미와 활동적인 이미지로 변형시킨 새로운 스타일로 인위적인 딱딱한 스타일보다는 자연스러운 스타일이었다. 경쾌하고 짧은 머리 스타일로 윗머리는 짧으면서 앞·옆머리는 긴 A라인 보브 스타일과 보이시하고 세련된 웨기 스타일로 짧은 머리로서 머리카락을 뺄뻑 뺄뻑 층이 지게 커트 하여, 꾸민 것 같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란 머리처럼 연출하였다. 긴 머리로는 웨기 스타일로 옆선을 가볍게 커트 한 후 부드러운 웨이브의 퍼머넨트로 풍성한 여성미를 느끼도록 한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1994년경에는 해초 퍼머넨트, 산성 퍼머넨트, 영양 퍼머넨트, 산소 퍼머넨트 등 자연스러운 웨이브와 함께 모발의 건강을 생각하는 퍼머넨트 웨이브와 함께 코팅 퍼머넨트 웨이브(coating Permanent Wave)가 유행하여 퍼머넨트 웨이브와 컬러 코팅(color coating)을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갈색, 와인색이 유행하였다.

1995년에는 커트는 심플하지만 다양한 변화를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스타일이 강세를 보였는데, 테크노 커트(techno cut)는 강렬한 직선 라인을 살리는 기법으로 라인에 층을 주어 커트 함으로써 볼륨감과 율동미를 더해 주었다. 부분 염색을 통해 모발의 음영과 생동감을 주는 한편, 현대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반면에 지나치게 곱슬거리지 않으면서 항상 자연스러운 컬이 유지되며 손질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헤어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세트나 아이론을 이용한 복고풍 헤어 분위기는 풍성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연출하여 도시 여성의 세련미와 함께 원숙미를 느끼게 해주었다.

모발 염색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더욱 다양해지고 헤어 패션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머리 전체를 염색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염색의 테크닉으로 모발다발을 블리치해서 각자의 취향에 맞는 색깔로 염색하였다. 색상의 시대에 맞게 여러 가지의 색깔을 머리 부분에 넣어서 느낌이 생생하도록 하고 헤어 전체의 색이 주는 입체감을 즐겼다.

1996년에는 갈색 톤의 자연스러운 색을 사용하여 전반적으로 모발 염색을 하거나 부분적인 블리치를 하였다.

전반적으로 둥근 그라데이션(gradation)형태로 수평 라인을 강조하였으며 얼굴 쪽으로 쏠린 선은 개성을 느낄 수 있었고, 머리 전체의 부드러운 면은 우아함을 주어 자연스런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숏트와 미디엄(medium)의 중간을 위한 최신 형태로 걸마름 퍼머넌트 웨이브 후드라이로 살짝 정리한 다음 무스를 사용하여 촉촉한 윤기를 더해 주었고 일명 나팔꽃 머리, 맥라이언 헤어스타일(meg ryan hair style)로 블리치며 앳되고 귀여운 이미지가 유행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는 볼륨감을 살린 굵은 웨이브의 숏컷 스타일로 여성스러움을 부각시켜주는 헤어스타일과 머리끝을 말아 올려 부드러운 여성미로 연출해주는 스타일과 옆머리와 뒷부분의 헤어 라인(hair line)을 일정하게 커트한 단발형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또한, 스트레이트 퍼머넌트는 1990년대에 꾸준히 유행하였으며, 헤어스타일 뿐 만이 아니라 모발의 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모발 염색 부분에 있어서 머리 전체를 염색해 부드러운 분위기로 연출하거나 과감하게 밝은 색으로 염색하였고, 다양한 색이 연출되었는데 특히 흰색, 청색, 보라색 계통이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흰색은 밝은 색으로 부분 염색을 하고 그 위에 탈색제를 사용하여 색깔을 내는 3회에서 5회정도 재 도포를 하여 색을 내는데 모발의 손상을 우려하여 하반기에는 흰색 피스를 붙이는 방향으로 선호하였다.

모발 염색의 기술과 모근 부분을 질게 하고 모발 끝을 밝게 하는 기술, 그리고 색깔 혼합에 의한 미묘한 조합원 발견 등 미용사의 센스가 어느 때 보다도 전문화되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패션 가발이라는 단어가 말하듯이, 자기 고유의 한 가지 헤어스타일에서 벗어나 변화를 추구하는 풍조가 연예계나 최첨단의 멋을 추구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되었다.

제 7절 2000년대 전반기 사회 문화 및 헤어스타일

1. 2000년대 전반기 사회문화

1) 2000년대 전반기 서양의 사회 문화

1980년대 후반 소련의 몰락으로 진행된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붕괴는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었으며, 1995년에 출범한 세계 무역 기구(WTO)로 인해 경제적 의미의 국경이 허물어지면서 세계가 열린 시장이 되는 무한 경쟁 시대가 도래하였다.

세계화는 통신 기술의 발달로 더욱 빨리 진행되고 있다. 19세기에 전신기와 전화기가 발명되고 1960대에는 통신 위성이 발달하면서 세계가 하나의 통신 권으로 연결되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같은 초고속 정보 통신망이 구축되어 세계적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음악은 물론 의복, 음식 등 일상 생활 양식에서도 국경을 초월한 세계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³³⁾

세계 무역 기구의 등장으로 세계가 하나의 단일 무역 권으로 묶이고 국가간의 무역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세계 교역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촌 경제 규모가 커지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세계화는 많은 부의 증진을 가져왔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인적 교류의 확대로 다양한 문화가 특정 공간에 혼재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의 접촉은 나 또는 우리의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넓은 시야에서 이웃을 이해하고 조화와 균형을 모색하는 바탕이 되었다.

2) 2000년대 전반기 한국의 사회 문화

세계화는 교통 수단의 발달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60년대에는 서울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로 18시간 걸렸으나 지금은 13시간 정도이고, 콩코드 비행기로 갈 경우에는 4시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간 거리의 단축은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좁혀 국가 간, 지역간의 관

33) 김주환외, 사회,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2, p368.

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들고 있다.

예전에는 책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에 있는 각종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물을 통해 집안에서 쉽게 쇼핑을 하고, 인터넷 뱅킹이 보편화되어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을 통해 취미나 사고 방식이 유사한 사람들끼리 친목을 도모할 수 있고, 전자 우편이나 채팅 등을 통해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사람들과 쉽게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원격 진료, 사이버 강의 등 각종 원격 교육이 가능해졌고, 재택 근무가 보편화 되고 있다.

2. 2000년대 전반기 헤어스타일

1) 2000년대 전반기 서양의 헤어스타일

유행을 전파하는 시간차가 짧아지면서 다른 시대 양식을 현재에 맞게 채용하거나 다른 문화에서 유행하는 이미지를 그 지역의 문화적 특징에 맞추어 채용하려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예를 들면 아프로 스타일은 더욱 강세를 떨쳐서 백인뿐만 아니라 동양권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그 문화권에 맞는 다양한 기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남녀 평등의 의식 속에서 남녀가 공유하는 스타일이 주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여자가 짧은 머리를 하거나 남자가 머리를 길러서 묶는 스타일이 그것이다.

이런 유니섹스 스타일은 서양에서는 컷트에 있어서 레이어 컷트가 남녀 모두가 애용하는 스타일이 되었다. 머리 형태상에서 개성을 추구하였다. 서양에서는 여전히 금발을 선호하여 금발을 만드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개발되었고, 컬러리스트들은 염색이나 블리치 또는 혼합기법을 통해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고 있다. 한편 빈번한 염색과 공해,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모발 손상 및 탈모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모발 과학, 즉 헤어 관리가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시장성이 밝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연주의가 강세를 보였으며 60년대 복고 무드인 보브(bob), 숏컷트

(short cut)등이 현대와 접목되어 유행하고 있다. “영화, TV, 잡지로부터의 다양한 이미지가 증가하게 되면서, 사진을 찍는데 있어서도 단순히 찍는 것에 그치지 않고, 메이크업, 헤어 디자인, 조명 등 각분야들이 총체적인 노력으로 하나의 상품을 만들게 되었다. 이제는 헤어가 머리 손질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있기에 디자이너에게 아트 디렉터, 헤어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아티스트라는 호칭을 쓰고 전반적인 조화와 아름다움 추구에 초점을 맞추는 토탈 뷰티차원에서 접근하려는 현상이 일고 있는 것이다.

2) 2000년대 전반기 한국의 헤어스타일

2000년대 헤어 주류는 과장되고 부풀린, 플레퍼 빅 차일드 스타일의 회귀로서 가발이나 헤어피스,익스텐션을 이용해 머리위로의 운동감을 강조하는 헤어스타일을 추구했다

1990년대 후반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이같은 경향은 앞머리 표현, 어지럽게 흐트러지는 텍스처어,정반대의 미니멀리즘적인 선과 형태,사이버룩, 낭만적인 디테일, 색실등을 이용한 헤어 악세서리 등의 형태로 돌출된다. 컬러는 레드, 블랙, 실버, 퍼플, 골드, 브라운 등으로 집약되며 한 가지의 색상으로 표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2000년대 전반기 트렌드의 핵심은 헤어의 전반적인 실루엣이 직사각형의 틀이며 이 속에서 정형화되지 않은, 다원화된 헤어의 표현으로 압축할 수 있다

끝을 단정하게 자르기 보다 끝을 날린 레이어드 커트이다. 바람에 날리는 깃털 처럼 가볍다 밖을 향해 자연 스럽게 뻗친 스타일은 여성들을 보다 활기차게 만들었다.이러한 스타일이 히피풍의 자연스럽고 로맨틱한 스타일로 이어졌고 긴 머리는 형클어진듯 섹시한 느낌을 살리거나 변형시킨 뿔은 머리로 자연 스러우면서도 로맨틱한 느낌을 표현했다.

제3장 서양의 헤어스타일이 한국여성의 헤어스타일에 미친 영향

제1절 1945년 해방이후

1945년 해방은 우리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광복된 연대로 패션의 풍속사가 바뀐 해이고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 헤어스타일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킨 시점이기도 하다.

이 당시 서양에서는 2차 대전의 발발로 여자들의 머리 모양이 굽슬거리는 긴 머리모양으로 바뀌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여자들은 머리를 등 뒤와 어깨로 길게 늘어뜨렸으며 이 긴 머리를 이마 위로 빗어 넘긴 풍과두르 모양이 유행되었다.

유럽에서는 뉴룩 스타일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스타일을 바꾸어 놓았으며 사람들은 두상을 작게 만들려고 노력하였고 헤어를 작게 만들어야 뉴룩과 잘 어울렸다.

머리카락은 크라운에 있는 쪽진 머리 안으로 말아 올렸다. 모자는 더 작아졌고 베일이나 깃털로 가볍게 장식한 베레모가 유행하였다.

이와 같은 서양 헤어스타일의 영향으로 우리 나라는 1945년 광복 후에 일제 말에 금지되었던 퍼머넌트 스타일이 다시 등장하였으며 전기 퍼머와 더불어 가봉 퍼머가 나왔고 원롤 지라시 등의 아이론에 의한 스타일이 유행되었다.

세미숏 시대에는 헤어스타일이 부드러워졌으며 손질하기가 쉬워졌다. 헤어의 크기를 작게 해야 뉴 룩과 잘 어울리는 조류 때문에 망으로 네이프에 느슨하게 씌운 스타일 또는 물결치는 웨이브나 후론트에 컬을 만들어 놓은 업스타일 등이 주로 애용되었다.³⁴⁾

광복 이후 일반 여성들의 풍속 중에서 제일 먼저 변한 것은 의상과 헤어스타일이었다. 1940년대 초기에는 일본은 전투복으로 여성들에게 몸빼를 입게 했고 이의 영향으로 광복 후에도 바지를 착용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간단복이라는 허리에 벨트가 있고 양옆에 포켓이

34) Richard Corson, Fashion in Hair, London: Peter Owen (1991), p. 622

있는 원피스를 입도록 강요하였다.

헤어스타일도 일제 말에 금지되었던 퍼머가 다시 등장하였으며, 가미 머리카락은 머리에 익숙해 있던 일반 여성들도 퍼머나 세팅 또는 아이론으로 웨이브를 내어 멋을 부렸는데, 머리 전체에 웨이브를 낸다는 것은 그 당시의 미용기술로는 어려웠다.

그래서 뒷머리는 적당히 빗고 앞머리는 아이론으로 쉼과 웨이브를 자잘하게 내어 멋을 부렸는데 이것을 그 당시 통용어로 아라이(자잘하게 볶는다는 뜻)또는 아이론이라 불렀다.

또한 멋쟁이 유한 부인들은 머리에 실을 집어 넣어 시대를 초월해 계속 애용되었다. 이 웨이브는 하나의 롤(one roll)로 바깥 말음으로 감은 웨이브로 뒤에 롤을 말아서 프론트에 쉼을 다룬 스타일을 볼 수 있고 14세기에는 남성의 헤어 중에도 롤이 쓰여지고 있다.

이 스타일은 양장 차림은 물론 한복 차림에도 잘 어울렸으며 간단히 완성할 수 있으므로 인기가 있었다. 완성할 때 막대기 모양의 덧모를 심으로 해서 모발을 말아 감도록 하는 것인데 딱딱한 느낌이 들지 않으며 부드럽고 소프트하게 만들었다. 롤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파도처럼 흐르도록 하지 않으면 안되며 롤의 길이에 따라서 다양한 연령층에서 선호할 수 있어 시대를 초월하여 유행하였다. 이 롤을 말은 스타일은 고대 로마시대부터 있었고 (후론트에 롤을 말았음), 프론트를 높게 한 풍파두르풍의 원롤이 현대적인 스타일로 등장한 것은 1940년대이다.

광복후의 퍼머는 주로 전기퍼머였다. 이북에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전기를 전국에 공급해 주어 전기퍼머를 하였는데 전쟁 후에 전력공급을 중단하자 불퍼머를 개발하였다. 지금의 번개탄과 비슷한 것으로 손가락 크기 만한 연료를 가봉이라 했는데 그 가봉에 불을 붙여 퍼머 집게의 양쪽에 두 개씩 넣어 은박지를 대고 머리를 말아서 퍼머를 하였던 것이다. 가봉의 재가 옷에 떨어지고 잘못하면 불똥이 옷에 튀어 구멍이 나기도 했지만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불퍼머를 하였다.³⁵⁾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쉼을 말라 머리의 웨이브를 부드럽게 내기도 하였다. 이 지라시 스타일은 앙글레즈 스타일에서 파생된 스타일로 역사적으로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으나 나폴레옹의 제정시대에 많이 보인다.

35)김춘득, 전게서,p305.

잘게 곱실거리는 컬을 내어 짧게 잘라서 네이프 끝까지 감았으며 흑인들의 곱슬머리와 비슷하다해서 키키프스타일이라고 불렀다. 또한 스트레이트도 층을 조금씩 주어서 포인트가 네이프나 아래쪽에 위치했다. 터번 풍의 모자모양으로 해서 30년대 초의 것과 크게 다르나 보다 풍속적인 고찰이 정착하게 되었다.

세로 롤로 감은 머리를 그대로 푼 것 같은 것과 롤의 머리끝이 경쾌하며 움직임이 있는 다이내믹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가 있다. 또 롤의 분량 여하에 따라서 밸런스가 변화해 탑 부분에 웨이브가 나게 하거나 롤을 후두부에서 하나로 정리하거나 둘로 정리할 수도 있으며 이런 후런치 풍의 세로롤과의 조합 등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을 표현했었다. 앵글레즈 스타일은 일제 말기에서 광복 초기까지 멋쟁이 여성들이 애용하던 스타일이었다.



그림 1 <1945년 서양의 헤어 스타일-1>자료출처<http://my.dreamwiz.com/orfeu/monro.jpg>.



그림 2 <1945년 한국의 헤어 스타일-1>자료출처<http://www.women.or.kr/culture/clothes/history/hair3>

제2절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서양의 문물은 급속도로 한반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양부인 들의 롱 스커트, 웨이브가 강한 컬의 파마, 빨간 입술, 빨간 매니큐어등 서구 사회의 패션 풍속도는 차츰 우리의 또다른 유행을 창조했다.

1950년대 서양의 포니테일스타일, 푸들커트 스타일은 우리 나라의 헤어스타일에 영향을 미쳐 볼 파마에서부터 콜드파마까지 파마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아이롱을 이용한 웨이브, 업스타일이 유행했다.

근대 한국 미용기의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1950년대의 우리 나라 미용실은 한 마디로 말해 미용인 들이 미용 기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구나 재료, 시약들이 전혀 갖추어지지 못한 전근대적이었다는 것이 원로 미용인 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미용실에서 고객의 머리를 미적인 감각으로 커트하고 컬러링을 통해 아름답게 가꾸어 주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라는 지적이다. 우리 나라에서 미용실이 늘어나기 시작한 때는 1950년대 후반부터이다. 파마머리라 하여 생머리를 불에 달군 고데기로 웨이브를 주어 아름답게 가꾸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이다.

6.25 전쟁통에 외국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이 도입되면서, 여성들의 머리모양도 점차 다양해졌고, 새로운 헤어스타일도 유행되기 시작했다. 파마머리를 하려는 고객들은 밀리는데, 마땅한 기구나 재료는 전혀 구비되지 않아, 미용인들이 정말로 고생스럽게 미용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50년대 고데 파마머리의 명화 「로마의 휴일」은 헤어스타일은 바뀌 놓아 여성들은 머리모양과 의상에 대해 무척 신경을 쓰게 됐다. 헤어스타일에 관한 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여성 모두의 관심사이다. 청바지 블라우스 차림에도 머리모양에는 예민해지는 것이 여성들이다. 그래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듬거나 모자를 쓴다. 여성들의 모자 착용은 광복 이후부터였다. 당시에는 여배우 등 일부 여성들이 모자를 착용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미용실이 늘어나면서 고데가 일반화되고, 파마머리라 하여 생머리를 불에 달군 고데기로 웨이브를 주어 아름답게 가꾸었다. 6.25 전쟁 이후 여성들의 머리모양도 점차 다양해지기 시작,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유행되었다.

미용실의 파마는 전기 파마·콜드웨이브 파마 등 다양화해졌다. 여성들의 파마를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로 유행시키는데는 영화가 한 몫을 했다.

1952년까지 숏 파마가 계속되다가 50년대 중반에 화제를 뿌린 영화 「로마의 휴일」로 여성들의 옷과 헤어스타일은 새로운 유행의 물결을 탔다.

로마의 휴일은 햄번 스타일로, 뒷머리가 짧은 쇼트 스타일인데, 뒤에서 볼 때 남녀의 구별이 어려울 정도였다. 이 때부터 머리모양은 점점 더 다양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여 덕크테일 형의 머리모양에다 동양적 실루엣을 가미시키는 새로운 형태가 나와 인기를 끌었다. 이 스타일은 앞머리가 위로 치켜지며 뒤 중앙에서 오리꼬리 모양을 이루는 형태의 헤어스타일이었다.

1955년에는 포니테일 스타일의 긴 머리가 짧은 층들을 사로잡을 정도로 유행했다. 말꼬리 모양의 헤어스타일이었는데, 젊고 발랄하게 보인다 하여 크게 유행했다.

1956년에는 로맨스 스타일의 머리모양이 등장해 관심을 끌었다. 이 헤어스타일은 S 자형의 웨이브를 만들어 두 귀를 덮어주는 헤어스타일이었다.

부팡 스타일은 14세기 중엽부터 패션계통에서 사용되었으나 1958년경부터 부팡이란 머리형을 지칭하게 되었다. 이 머리형은 수년간 일반인들이 선호하였고 초기에 꿀벌집 스타일을 짧게 한 느낌에서부터 점차 쇼트로 되어 안마름(페이저보이)의 실루엣으로 옮겨져 갔다.

공통점은 역모를 다 세웠다. 이 머리형은 여배우 소피아 로렌, 영국의 마거리트 왕녀가 즐겨 애용하던 스타일이다. 부팡 플립스타일로 모발 끝을 걸마름한 스타일도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소두마끼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졌다.

또한 크리스찬 디오르라는 이름이 붙은 시니온은 53년을 전후해서 미국의 가장 대중화되었던 야외용 스타일로 모양은 사이드 파트이며 사이드에서 모발을 꼬이게 하여 변형된 후렌치 트위스트로 말아 올리거나 장식 핀을 사용했으며 나머지 남겨진 모발은 웨이브를 살리면서 머리정상에 장식했다.

또 세가닥 땅기의 모발 다발을 원추형으로 쌓아 올려 크라운에 장식한 업스타일도 선보였다. 가장 단순한 프렌치 트위스트가 파리에서 유

행이었다. 라이트스타일에 크라운에 도너츠형의 부분 가발을 사용하여 머리를 부풀게 하였다.

이 시대에 대담하게 정면 도전한 젊은 스타일리스트가 그의 새로운 커트로 당시 헤어 패션계에 혁명을 일으킴으로써 젊은 여성들의 스포티한 헤어스타일이 형성되었다. 프랑스 미용사의 이름은 장 루이스 다비드였으며 그의 고객은 장 세베르그였다.

결과적으로 근대의 젊음을 표현한 스타일이며 이것은 당시의 여성들에게 히트했으나 물론 누구에게나 알맞는 스타일은 아니다.

브릿치 스타일이 조금씩 연출되기 시작하였으며 군데군데 뗏슈를 정해서 탈색시킨 뗏슈 폴로레가 유행을 타기 시작하였다. 단순하고 칙칙한 색상에서 포인트를 주는 아이디어는 참신하기까지 하였다.

또 나스타샤 킨스키의 세가닥 땡기로 긴 금발머리를 한가운데 가르마를 해서 헤어밴드처럼 머리에 돌려 감은 머리형으로 간편하고 심플한 스타일이었다.

청순 가련한 형으로 고르키의 명작소설 “밑바닥 인생”에서 가련한 처녀 나스타샤 킨스키의 머리형이다.

곱슬곱슬한 지라시 파마와 보브스타일의 단발 퍼머를 많이 하였으며 자연스런 웨이브를 만들기 위해서 셋팅기구로 감거나 고데기로 웨이브를 느슨하게 켜 했으며 퍼머머리는 세팅이나 고데하기 위하여 하는 전처리 단계로 이용되었다. 또 커다란 핑키 크레이지 스타일에 가까운 발랄하고 귀여운 커트 스타일이다. 짧게 커트한 앞머리가 신세대의 자유분방함을 살려 우아한 이미지를 준다.

예전의 헤어스타일이 평면적인데 비해 이시기는 훨씬 입체감이 있고 커다란 웨이브를 사이드에 부착시키고 크라운 부분은 평평하게 흘리거나 뒤로 분리하여 색다른 느낌이 나도록 입체감을 살려 디자인되었다. 타이트하게 처리한 쇼트머리 정상 부위에 도넛형의 부분 가발을 얹거나 백콤을 넣어 모발을 부풀게 했으며 얇은 네트를 씌우기도 하였다.

그 후 우리 나라에서도 상영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에서도 짧은 머리로 장 폴벤몬드와 공연해 보이쉬한 짧은 커트 스타일을 선보였는데 이 짧은 쇼트 커트가 일명 세실 커트라 하여 젊은 여성들 사이에 유행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헵번 스타일과 더불어 스잔 헤이워드, 리타의 웨이브진 긴 머리 스타일을 부드럽게 뒤로 빗어 올린 프렌지 트위스트 스

타일 등도 많이 따라했다. 여기에 비스듬히 모자와 베일을 써서 더욱 세련된 여성미를 표현했다. 36)

20대 전후의 소녀들은 청순하며 깨끗하고 감쪽한 처녀의 이미지를 살려 늘어진 말꼬리 모양의 포니테일스타일에 리본을 묶었는데 이것이 50년대의 특징적 스타일이었다. 이마와 뺨에 납작하게 붙인 곱슬 애교 머리스타일과 큰 웨이브를 평평하게 흘리거나 분리해서 컬 다발을 서로 다른 모발의 흐름처럼 취급하는 등 입체감을 살리기 위하여 큰 웨이브를 사이드에 부착시켰다.

1953년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열렸으며 첫 번째 수상자는 강귀희씨 였다. 신윤복의 미인도에서 보았듯이 미의 기준은 코의 넓이와 높이를 기준으로 삼아 둥근 계란형의 윤곽에 반달눈썹을 최고로 선호했으며 미인이면 팔자가 세다는 속설이 유래되고 있다. 현대의 미스 코리아의 미의 척도는 서구화되어서 팔등신을 꼽고 있으며 1957년대 기준이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반에는 여전히 불퍼머를 하였으나 한편에서는 콜드퍼머액이 새로 들어와 전기나 가봉으로 하던 번거롭고 불편하던 퍼머 시대는 차츰 막을 내리게 되었다.

여성들은 여전히 아이론으로 단발형의 안 말음(우치마키)과 겹말음(소두마키)을 선호하여 헤어스타일에서 개성을 찾아 볼 수 없었으며 미용실에서 연탄불에 아이론을 얹어 머리를 하였기 때문에 연탄 냄새로 골머리를 앓는 미용사도 생겼다. 그후 프로판 가스가 나오자 연탄 냄새는 사라지게 되었으나 1960년대 말까지 동네의 작은 미용실에서는 계속 연탄불을 사용하는 실정이었다.

아이론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안말음이나 바깥말음을 하는데 2일 정도 지나면 중간 손질을 다시 하여 그 스타일을 일주일씩이나 유지하였다. 아이론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손질하였기에 어느 여성을 막론하고 머리끝이 탔고 머릿결의 손상이 많았지만 여성들은 헤어스타일의 형태만 생각했지 모발의 건강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았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많아지면서 특수층고 부유층이 주고객이었던 미용실이 대중화되었으며 미용이 생활의 일부로 인식되어 일반 여성 고객들도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

36) Georgina Howell, In Vogue 75 Years of Style, London: Conde Nast Books(1991), p.128

1950년대의 전쟁의 혼란스러운 시대를 거치면서도 미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져 양감을 강조한 풍성하고 얼굴을 둘러싼 앞과 옆으로 최대한의 양감을 가진, 머리카락자체를 얼굴의 장식으로 이용한 스타일이 창안되었으며, 헤어스타일의 새로운 연구와 미용사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이러한 추세는 1960년대까지 이어져 패션보다는 헤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헤어 디자이너들의 위상이 높아졌고 각종 잡지에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헤어스타일은 타이트하고 심플하게 부풀린 헤어보다는 두상이 작아 보이게 연출했으며 모자 등을 많이 이용하였다.³⁷⁾

37) 김춘득, 전계서, pp207~211.



그림 3 <195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1><http://www.allposters.com/gallery>



그림 4 <195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2>자료출처<http://my.dreamwiz.com/orfeu/monro.jpg>.



그림 5 <195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1>자료출처http://misskorea.hankooki.com/photo_image



그림 6 <195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2>자료출처http://misskorea.hankooki.com/photo_image_

제3절 1960년대

1960년대 서양에서는 가발을 이용한 헤어스타일이 나타났으며 이 시대의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인 비달사순이 전세계 미용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파마머리가 유행한 이 당시의 헤어는 1년에 한번 여름 장마철에 대비책으로 하는 큰 행사였다. 날씨가 습하면 아이론을 해놓은 머리가 주저앉으니까 파마를 해서 아이론이 오래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일명 새엄마 머리라는 드라마의 주인공 머리를 본떠서 유행이 되었다. 두피에 공기가 안 들어갈 정도로 야무지게 다듬어서 순종하고 견디는 60년대의 부인네들의 삶이 머리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또 반만 틀어 올린 트위스트 머리는 부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머리로 멋내는 처녀들만 가능했던 스타일이었다. 또 봄베이지 스타일은 짧은 머리이면서 위에 가발을 틀어 올렸다. 60년대 후반에 가발이 등장하면서 가발을 이용한 머리가 유행되었었다.

파마도 숯불로 하는 시기였다. 손가락 굵기만한 동그란 숯을 불에 지펴서 집게 양쪽에 달린 알루미늄클립(숯불을 담는 용기)에 넣어서 머리에 은박지를 붙이고 그 집게를 얹으면 머리가 따끈따끈 해져서 퍼머가 된다. 이 당시는 머리를 조금만 늘어뜨려도 여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에서 목선에서 5-6cm만 내려와도 무조건 올렸다.³⁸⁾

또 이 당시는 컷트라는 개념이 없었다. 아이론을 위해서 두발을 자를 뿐이지 스타일을 내기 위해서 컷트를 하지는 않았다.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많아지면서 특수층과 부유층이 주고객이었던 미용실이 대중화되었으며, 미용이 생활의 일부로 인식되어 일반 여성고객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1950년대를 거치면서 헤어스타일이 급격히 다양해 짐에 따라 미용사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이러한 추세는 1960년대까지 이어져 여성들은 옷보다 헤어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헤어 디자이너들의 사회적 지위는 높아졌고 각종 잡지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1950년대 후기부터는 양감을 강조하여 풍성한 스타일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얼굴을 둘러싼 앞과 옆으로 최대한 양감을 가진, 머리

38) 레이디 경향, 2001 3월호, pp329~330

털 자체를 얼굴의 장식으로 뚜렷이 한 헤어스타일을 창안하였고, 이 스타일은 196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1960년은 우리 나라 역사상 잊을 수 없는 해였다. 자유당의 장기 집권에 의한 독재와 비민주적인 인권 탄압에 항거하여 대학생들이 일어나고 교수, 지식인,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 들고 일어난 4·19의거가 있었던 해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사인을 하였고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독재정권을 무너뜨렸고 이를 계기로 민주주의는 새롭게 발전하였다. 그 결과 자유당 정권이 물러나고 장면 내각이 들어서서 1년여 동안 민주정치가 이루어졌으나 1961년 고 박정희가 주도한 5·16군사 혁명으로 군사정권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정치적으로는 경직되었던 사회 현상과는 달리 여성들의 패션의 흐름은 멈추지 않고 새롭게 변하여 갔다.

한편, 백조 라인이라고 한 조금 변형된 스타일도 있었는데 이 스타일 역시 부드러운 웨이브를 사이드와 후두부에 준 풍만하고 소프트한 형으로 후두부의 가운데로부터 약간 밑으로 바람에 날린 듯 머리카락 끝을 올리고 앞에는 이마를 내보이는 형이다.

날개를 편 물새처럼 기품 있고 풍만한 현대적인 감각을 웨이브에서 살린 바가지 스타일이나 백조라인의 스타일은 미용 용어로는 크라운 봄베이지(Crown Bombe) 스타일이라 했는데 이것은 크라운에 볼륨이 있고 부풀어 있는 모양에서 나온 말이다. 갖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형태로 정수리를 부풀렸고 백콤을 넣거나 부분 가발을 엮었으며 스트레이트한 업 스타일과 보브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양감의 형태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전반적으로 부풀려서 웨이브를 준 바가지 스타일이나 백조 라인이었고 다른 하나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한 스타일로 정상 부위에 컬을 엮은 형태의 조형적인 스타일이거나 헤어밴드 리본을 결들인 현대적인 감각 스타일이었다.

또 이시기에 귀가 반쯤 나오는 길이의 그라데이션 보브스타일이 듀오 라인에서 파생하여 프론트 부분에 뱅을 만들어 둥글게 마무리하였으며 네이프 부분은 상고 스타일로 치켜올려 시원하고 발랄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페이지보이 스타일이 바깥 말음이라고 하고 플립이란 가볍게 탁 친다라는 말의 뜻이며 헤어스타일 용어에서는 경쾌하게 모발 끝이 바깥쪽으로 감겨있는 바깥말음 스타일의 세미롱 보브를 말한다.

역동적이며 젊은 형태로 1962년경부터 유행해 나이든 여성에게 하이 패션적인 감각의 머리형으로 유행해 왔다.

1960년대에는 비틀즈가 탄생하여 미니스커트와 간편하고 싱그러운 보브스타일, 비틀즈 음악이 등장하여 이른바 비틀즈 룩(look)이 확산 되었으며, 비틀즈의 헤어스타일에 영향을 받은 이마에 앞머리를 살짝 드리우는 등의 헤어스타일이 유행되어었다. 기존 사회에 반기를 든 히피족이나 집시들도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부각되어 우리 나라에서는 맘보 바지와 플레어 스커트, 판탈롱이라 부르는 테일러드 팬츠 슈트가 1968년경에 등장하여 유행하였다.³⁹⁾

비틀즈 보브 스타일도 팝음악과 함께 폭발적인 인기를 불러일으킨 헤어스타일로 앞프린지를 길게 늘어 뜨렸으며 머릿결은 스트레이트를 하였다. 또한 금속성의 우주적인 느낌을 강조한 펄 재료 의상과 미니 스커트와 롱 부츠와 앞코가 약간 무딘 로힐이라는 신발이 선보였으며 여성들의 사회 참여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여성들의 존재의식과 더욱 확고한 사회적 가치관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제클린 케네디가 곧잘 하였던 업스타일은 꿀벌집 모양의 한 유형이며 이 머리형은 15세기 이탈리아 화가 안토니오 피사넬로가 디자인한 머리형하고 같은 실루엣을 가지고 있다. 생기 발랄하고 단순한 아름다움으로 60년대 초의 여성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⁴⁰⁾

이 당시 대표적인 웨이브의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 하나는 중간 기장의 머리에 웨이브를 안으로 만 안말음이고 하나는 밖으로 웨이브를 만 바깥말음이 유행하였다.⁴¹⁾

39) 김춘득,전계서,pp214~216

40) Dylan Jones, Haircults, London: Thames and Hudson(1990), p.39

41) 나윤영,전계서,p47.



그림 7 <196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1><http://www.allposters.com/gallery>



그림 8 <196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2>자료출처<http://my.dreamwiz.com/orfeu/monro.jpg>.



그림 9 <196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1>자료출처http://misskorea.hankooki.com/photo_image_



그림 10 <196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2>자료출처http://misskorea.hankooki.com/photo_image_

제4절 1970년대

우리나라도 머리 모양이 버섯과 비슷한 머쉬룸(Mushroom), 나비의 날개와 같아 붙여진 화이어 플라이(Fire fly) 등이 크게 유행한 커트 전성기 시대로 접어들었다.

70년대에는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생활방식의 복잡화로 여성들의 활동영역이 다양해짐에 따라 자연스러우면서도 간결한 머리형이 여성들 사이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지금까지의 아이론과 세트에 의한 웨이브 구성이 서서히 사라지고 블로우드라이란 가벼운 스타일이 나왔는데 이 스타일을 처음 소개한 사람은 재미교포 미용가 홍계남이었다. 또한 바디퍼머라고 부르는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있는 퍼머가 유행했는데 이 퍼머의 특징은 샴푸후 스스로 손질하여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⁴²⁾

유행에 민감 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머리가 유행하면 모든 여성들이 다 따라하는 때로 미용산업의 역사에 있어서 이때가 가장 업그레이드(upgrade)된 시기였다. 퍼머도 생활화되기 시작했고 커트라는 개념이 생겼다. 이때부터 머리 손질을 한다는 인식이 생기는 때이기도 했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퍼머의 붐(Boom) 꼬불꼬불하고 빠글빠글한, 강한 컬(Curl)의 퍼머가 유행이었다. 한 달에 한두번씩 할 정도로 뿌리에 볼륨을 주는 강한 퍼머머리가 유행했다. 끝자락이 풀려서가 아니라 뿌리부분에 볼륨을 얻으려고 퍼머를 했다.

또 ‘커트비’라는 단어도 이때부터 생겼다 당시 유학과였던 그레이스 리(본명 김경자)씨로부터 처음 시작되어 커트가 미용의 한 부분이 되어 정착되어졌다. 유행머리는 ‘상고머리’ 뒷머리는 층이 많이 자르고 윗머리는 길게 해서 뒤통수가 동그랗게 튀어나와 보이는 스타일이다. 정윤희,유지인,혜은이등의 연예인들이 많이 했던 일명 바람머리가 유행했었다. 이런 스타일이 유행하게 된 것도 드라이기가 일반인에 많이 보급되면서 보편화되기 시작했다.⁴³⁾

이 시기에는 경제개발 계획으로 인한 고속성장으로 생활이 풍요로워지면서 여성들의 사치풍조가 만연하게 됐다. 국회 진출을 통한 여성들의 정치활동 증가로 가족법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는 등 여성의 권리를

42) 전선정의,전계서,p348.

43) 여성중앙,1995,8월호,p257.

확립하는 여성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현대 여성들이 가꾸어 가는 아름다움은 화장품의 획일화와 아름다움의 원형으로 제시된 본보기들의 다양함에서 부조화한 양상을 보였다. 여성 운동은 가부장적 권력의 노예로 전락해 버린 여성들을 비난하면서 미용자체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⁴⁴⁾

불경기, 오일 쇼크, 달러 쇼크, 인플레이션 현상 등 전 세계적으로 불황을 겪었던 어려운 시기였다. 그러나 여성들의 사회적 영향력과 사회 참여에 대한 의식은 날로 높아져 여성의 자기 직업을 중시하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이 시대의 유행을 선도하는 20대 후반의 젊은이들은 결혼하고 직장에도 다니면서 보수적인 스타일을 찾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젊은 여성들의 스타일은 보다 성숙한 감각으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베트남 전쟁의 영향으로 긴 롱스커트인 월남 치마가 패션계에서 유행하였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전쟁과 대립이 번잡했던 세대에 인간성의 상실을 경고하고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반전 운동이 사회적으로 폭 넓은 지지를 받았으며, 기성 세대에 반발하여 사회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핑크 스타일이 젊은이들의 독특한 문화양식으로 선보이기도 하였다.

70년대 초기에는 우리 나라에서 커트의 개념이 긴 머리를 그냥 자른다는 개념에서 모발을 각도에 의해 모발을 나누어서 기하학적으로 자른다는 개념으로 바뀌어 정립된 시기이다.

해외로 미용 연수를 떠나거나 해외의 미용 세미나에 미용인들이 참석하기 시작했으며 서구에서는 초미니스커트와 함께 비달 사순이라는 미용가가 창작한 커트 스타일이 붐을 이뤄 유행이 절정을 이루었던 시기였다.

탑부위는 언밸런스한 그라데이션으로 소프트한 멋을 살렸고 네이프는 상고 단발 스타일에 귀밑과 목선을 앙증스런 삼각형으로 처리하고 짧게 커팅한 머리에 컬러를 입혀 젊은 세대의 감각을 돋보이게 했으며 언제 어디서나 스타일링제를 사용하여 가볍게 웨이브를 주어 촉촉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살린 도회풍의 어심 메트릭한 스타일이다.

멋쟁이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으며 단발에 싫증을 느낀 세대들이 언밸런스하고 비대칭형인 스타일로 변화를 추구했다. 튜닝기법으로

44) 김춘득, 전계서, pp224~225

가볍게 처리했으며 핑크스타일로 탑부분을 들쭉날쭉하게 세웠다.

지금까지의 헤어의 흐름은 자연스러움이 아닌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스타일이었는데, 각도에 의한 기하학적 커트는 모발의 자연스런 흐름을 살린 새로운 경지의 커트였다. 60년대 초두에 미니스커트와 함께 세상에 나온 새로운 경향의 헤어스타일은 비달 사순풍의 일곱 개의 베이직한 아이디어는 보브, 헤어로, 파이어, 프라이, 베이직 레이어, 웬지, 세이크, 이런 테크닉이 언제나 새시대의 아이디어와 결부되어 새로 생겨났다. 비달 사순의 커트 기법은 천재적인 재능으로 지금은 기업 명으로 남아 헤어 패션과 미용학교의 대명사로 남아 있다.

1960년에 이미 서구에서는 비달 사순의 커트가 새로운 경향의 헤어스타일로 퍼져 나갔으며 헤어스타일 유행의 메커니즘은 거의 비달 사순에 독점되었었다. 사순 풍을 모방한 각국의 헤어 디자이너들이 실력을 발휘하여 뉴 트렌드(new trend)의 창조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비달 사순은 서구에서 혁신적인 커트를 보브라는 언어로 묘사하여 구미에서 일대 선풍을 일으켰다.⁴⁵⁾

보브란 아이디어는 당시 비달 사순 밑에서 일하는 모든 스타일리스트들의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것이며 그들 중에는 미니스커트를 디자인 한 메리 퀸도 들어 있었다. 그들은 모발이 자연스럽게 늘어지는 현상을 연구하던 중 이와 같은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또한 70년대에는 집시풍의 룩이 유행했으며 멋부림의 감각적인 스카프를 유행에 상관없이 즐겨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꽃모양으로 각도를 지은 커트, 머리다발의 하나하나를 꽃잎으로 보고 머리전체에 꽃을 모양진 것처럼 한 기교적인 커트의 머리형이다.

이 머리형의 참신한 아이디어는 물에 젖어도 스타일의 아름다움이 손상 안되며 도리어 풀장이나 바닷물 속에서 움직임이 있는 아름다움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 웨트루크, 즉 풀에 젖은 것처럼 번쩍이는 감각의 소재 등이 유행하게 되었던 것이니 기술면에서는 기막힌 착상으로 커트의 기술이 생명이며 이것만으로도 돋보이게 하는 헤어스타일이다.

닭벼슬 모양으로 이마 부분을 산 모양으로 높여 재치 있고 사랑스러운 독창적인 스타일을 창조하였다. 헤어스타일의 손질이 쉬우므로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후론트를 강조하지 않으면 엔지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은 떨쳐 버릴 수가 없으며 여성스러움과 섹스 어필을 위

45) Diane Fishman & Marcia Powell, Vidal Sassoon, N.Y: Rizzoli, 1993, p.60

한 컬렉션이다.

우리 나라의 흑백 TV시대인 70년대는 색상에 대한 대중매체를 통합 급격한 유행의 확산보다는 영화를 통해 배우들의 선풍적인 스타일을 선호했던 것이다.

아이론과 셋트를 이용한 조형적인 웨이브 머리는 사라지고 대신 뚝 떨어지는 블런트커트와 깔끔한 블로운 테크닉이 발휘된 우아한 헤어스타일이 여성미를 잘 표현하였다.

펑크족의 헤어스타일은 과격적이었다. 그들은 머리를 불규칙적으로 갈라서 뽕족하게 만든 다음 뺏뺏이 세워 고정 시켜서 마치 머리에 뿔이 난 것처럼 보이게 했다. 머리 양쪽을 바깥 자르거나 심지어 면도를 하고 앞이마에서부터 네이프 포인트까지 넓은 부채 모양으로 손질해 수탉의 벼슬처럼 머리카락을 곳곳이 세운 모히칸족 헤어스타일이 선보이기도 하였다.

런던의 번두리에서도 자유분방한 펑크운동이 몸이나 얼굴에 문신을 서로 다른 여러 스타일들이 쇼윈도에 진열되면서 보색과 원색을 사용하고 강렬한 시각을 자극하는 스타일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혁명적인 질은 아이라인의 색상과 질감을 통해 반항적인 이미지를 창출하였다.

머리카락을 꼬아 곧추 세워서 마치 무엇인가 금방 폭발 할 듯 느껴지는 머리형은 스피크 헤어스타일이다. 펑크족을 규정 짓는데 가장 손쉽게 꼽을 수 있는것이 헤어스타일이었다. 이들은 펑크 감각으로 커트한 머리카락의 부분 부분을 다른 색으로 염색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대중들에게도 널리 유행을 불러 일으켜 헤어 패션으로 자리잡았다.

레이어커트는 1970년대 전반기에 커트붐이 절정을 이루던 시기였고 내추럴한 경향으로 제각기 개성화를 추구한 여성의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리고 이 시대는 국제 여성의 해를 맞이하여 여성의 활동 범위가 더욱 확대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초기에 유행한 커트로선 웨기커트(shaggy cut)를 들 수 있는데, 이 커트는 뒷 목덜미 부위에 길게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게 하는 커트로 한동안 유행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일명 거지커트라고 불렸다.

이 웨기라는 말은 원래 거칠다는 말인데 말의 뜻과는 달리 실제로 이 커트 기법은 아주 섬세하여 어느 쪽에서든지 섹션을 잡아 보더라도 직선적이며 머리끝이 가지런하다. 크라운 부분은 펑크스타일에 네이프라인은 길다랗게 뒤로 늘어 뜨려 산만한 느낌을 자아내게 하였다.

그리고 이 시대에 단정하고 깔끔한 하이컬러에 식상한 젊은이들 사이에는 기성세대에 대한 기존의 전통과 관념을 거부하는 반항적인 스타일이었다.⁴⁶⁾

귀를 덮을 정도의 긴 장발이 유행하였고, 청바지와 함께 비판 없이 받아들여져 젊은이들 사이에 청바지 문화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핫팬츠와 초미니가 유행하여 새로운 서구 스타일이 번져 나갔다.

1973년경 한때 정부에서는 길거리에서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니는 장발족의 남자들을 경찰서로 잡아들여 클리퍼로 한쪽 머리를 고속도로처럼 밀어버리고 훈방 조치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남성들의 장발족이나 웨이브를 내서 풀어놓은 히피 스타일은 당시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보이쉬 커트와 대조를 이뤄 머리모양 만으로는 성별을 구별하기 어려웠다. 또 여성들은 스커트가 무릎위 17cm이상 올라가면 풍기문란으로 경범죄 처벌을 받았다.

여성의 전통적 역할만을 강요당하는 억압에서 탈피를 상징하듯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스타일이 나타났고 치마의 길이가 갈수록 짧아져서 구세대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으나 신세대들은 각선미를 자랑하였다. 딸가진 엄마들의 마음을 애태우게 했으나 신세대들은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더욱 즐겼다.

70년대 말에 전반적인 경기 침체는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복잡해지고 여성들의 활동영역이 다양해짐에 따라 실용적이면서도 자연스럽고 간결한 머리형을 여성들이 선호하였다. 지금까지의 아이론과 세트에 의한 딱딱한 웨이브 구성이 서서히 사라지고 블로우 드라이란 새로운 기구와 기법에 의해 유연하고 내추럴한 움직임이 있는 소프트한 웨이브 스타일이 나왔다.

서양에서 블로우 드라이 스타일은 우리 나라에서는 바람머리 스타일이라고 하였는데 이 스타일이 소개되자마자 각 미용실에서는 이 새로운 기구에 의한 새로운 기법의 스타일을 배워서 고객들에게 보급하였는데 이로 인해 바람머리 스타일이 삼시간에 유행되었다.

이마를 거의 가린 듯한 형태로 영국의 황태자비인 다이애나가 주로 했던 초창기 스타일이다. 사회적인 배경도 있었겠지만 다이애나의 청순한 이미지가 바람머리의 유행을 더욱 확산 시켰다.

이 블로우 스타일의 브러쉬를 고안한 미용가는 영국의 헤럴드 레이턴

46) 전완길외, 한국생활문화 100년, 서울, 장원, 1995, pp108~109

이다.

이 사람은 제랄 오스틴, 레온 산들러, 비달 사순 등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인물로 전세계에 미용계의 혁신가로 알려진 사람이다.

이 당시 정확한 블런트 커트(blunt cut)와 말끔한 블로우 드라이 테크닉에 의한 영국미용의 우아한 스타일에 매료된 세계 여성들은 지금도 전통적인 그 테크닉을 살려 여성미를 표현하고 있다.

또 전통적인 시저스(scissors)커트에 의한 블로우 스타일은 많은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유행하고 있다. 또 레저를 사용한 테퍼커즈로 유행에 일조를 거듭었다.

여성들의 머리모양은 얼굴형에 따른 디자인 커트와 그에 따른 퍼머 스타일이 유행하였고, 그 퍼머머리에 블로우 드라이로 부드럽고 유연한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대로 일반적인 스타일로 펌이 자리를 잡았으며 스트레이트, 드라이펌, 부메랑, 핀컬, 드라이펌, 보브컷, 1/2컷, 기본형, 뿌리펌, 디자인펌 등 파마스타일의 명칭은 사용한 기구의 이름이나 시술후의 머리모양에 따라 분류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새로운 펌이 등장하면서 디스코룩이라는 필요한 부분에만 웨이브를 넣은 디자인 펌들의 인기가 계속되었다.

퍼머는 아이론이나 셋팅, 또는 블로우 드라이를 하기 위한 전 스타일로 탄력있는 웨이브를 오래 지속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출시 미용실에 들어서 헤어스타일을 만들고 외출하였는데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활동 범위가 넓어져 시간이 절약되는 간편한 스타일을 원하게 되자 바디 퍼머라고 하는 자연스런 웨이브 퍼머가 나오게 되었는데 머리카락 끝에만 웨이브나 컬을 만들어 언뜻 보기에는 약간 웨이브가 진 반곱슬 머리처럼 보였다. 이 퍼머의 특징은 샴푸 후 스스로 손질하여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젊은 여성들이 많이 하였다. 생기 발랄하고 젊음을 표현한 생동감 있는 무브먼트 스타일이다.

이 스타일은 심플한 실루엣으로 기능성을 지니면서도 여자다운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자신만의 개성을 강조하는 여성에게 애용되었다. 이 머쉬룸 스타일과는 반대되는 형으로 엄브렐라(umbrella)스타일이 있는데 이것은 파라솔을 편 모양의 실루엣으로 머리끝이 바깥쪽을 향하게

디자인된 컬을 한 스타일이다.⁴⁷⁾

70년대 중반부터 우리 나라 젊은 여성들 특히 활동적인 여성들에게 머쉬룸(mushroom), 즉 버섯모양의 헤어가 꾸준히 인기를 얻어 하나의 헤어스타일로 정착 되었다. 이 스타일은 모발의 흐름이 중심에서 방사형으로 흘러서 옆이 넓게되며 모발 끝이 얼굴 쪽을 향해서 모아진 실루엣으로 중세의 승려머리 스타일에서 발달한 것이다. 귀여움을 느끼게 하며 투박하면서도 감각적인 헤어 포지션을 변형시킨 패션양식이다.

70년대 말부터 불균형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듯한 머리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의 헤어스타일은 사순 커트의 기하학적이고 직선적인 시저의 커트로 여성미를 살려 만든 커트였는데, 이 머리 모양은 컬이 움직이는 듯한 스타일로 완전히 조형화된 흐름에서 탈피하여 디자인된 스타일이다.

콘케이브 커트(concave cut : 굴곡이 들쭉날쭉한 커트)라고 불린 이 커트는 정돈되지 않은 불균형적인 실루엣이긴 하나 정면에서 보면 아주 경쾌한 흐름이 포인트가 되며 살아 흐르는 듯한 움직임이 색다른 감이 있다.

정형적인 형보다는 모발의 흐름과 질감에 포인트를 준, 새롭고 신선한 느낌을 주는 스타일이었다. 자칫 둔탁한 느낌을 끝을 가볍고 들쭉날쭉하게 함으로 해서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다.⁴⁸⁾

47) 전완길외,전게서,pp110

48) 김춘득,전게서,pp221~225.



그림 11 <1970년대서양의헤어
스타일-1>자료출처<http://100.naver.com>



그림 12 <1970년대서양의헤어
스타일-2>자료출처<http://my.dreamwiz.com/orfeu/monro.jpg>



그림 13 <1970년대서양의헤어
스타일-3>자료출처http://www.cyberbeauty.co.kr/link/link_woman.html



그림 14 <1970년대서양의헤어
스타일-4>자료출처<http://www.cyberbeauty.co.kr/link/>



그림 15 <197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1><http://my.dreamwiz.com/orfeu/monro.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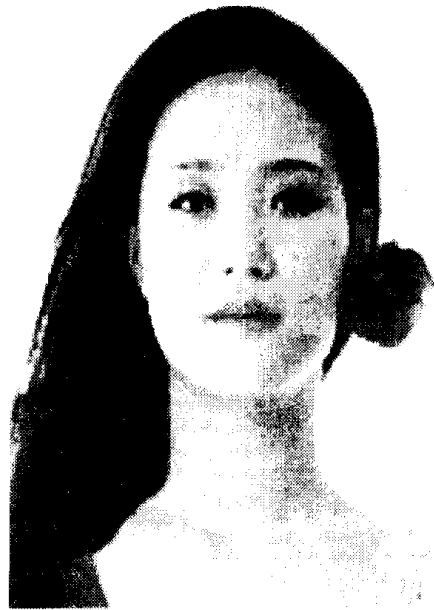


그림 16 <197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2>자료출처http://misskorea.hankooki.com/photo_image_



그림 17 <197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3>자료출처http://misskorea.hankooki.com/photo_image_



그림 18 <197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4>자료출처http://misskorea.hankooki.com/photo_image_

제5절 1980년대

80년대 서양의 다양한 스타일의 디자인이 도입되어 레트로 룩(Retro Look)이 주류를 이뤄, 컬(Curl), 웨이브(Wave), 펌(Permanent Wave)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여 헤어스타일에서는 80년대말 헤어 패션계를 휩쓸었던 디스커넥션 커트(Disconnection Cut)가 현대적인 감각과 어우러져 모더니즘으로 승화되어 나타났다. 텍스처(Texture), 컬러(Color), 메이크업(Makeup) 등에서 과장된 스타일이 시도 되지만 예전 그대로가 아닌 보다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되어진다.

복고풍의 풍성하고 부드러운 웨이브와 숨털처럼 가벼운 레이어드, 일명 '바람머리'가 패션 리더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원래스의 딱딱하고 인위적인 느낌을 배제하고 스트레이트 헤어라도 옆선에서 층을 많이 내어 소프트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일부에서는 1970~80년대 여배우들을 중요한 이미지 모델로 삼고 있을 정도다. 49)

1980년대는 오일쇼크로 인한 불안과 절망으로 과장되게 부풀린 앞머리, 불규칙한 퍼머 스타일이 성행한 파마 전성기였다.

서양의 80년대는 스타일링 제품의 사용과 잦은 퍼머와 염색, 탈색등으로 손상된 모발을 보호 재생하는데 주의를 기울였다.50)

70년대 한창 주도했던 머리가 싫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드라이기의 보급으로 인해 파마를 하고 집에서 스스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로 되어갔다. 80년대는 파마를 한다는 것이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민감해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똑같이 머리를 할 정도였다.

특히 유행했던 머리는 자존심 머리 였다. 일명 '황신혜 머리' <그림 24 198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2>처럼 앞머리를 있는 대로 높이 세워서 볼륨을 많이 주는 것이 유행이었다. 파마의 컬이 훨씬 굵어지고 자연스러워 졌다. 처녀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일반 부인들은 대부분 파마나 셋팅을 했지 길게 풀고 다니는 생머리는 드물었다.

또 이 당시의 미용실도 대형화되어서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는 곳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번두리 미용실을 제외하고는 샴푸시설이 생겼다. 또

49) http://www.cyberbeauty.co.kr/link/link_woman.html

50) Diane Fishman & Marcia Powell, op, cit, p71.

남자들도 이때부터 미용실로 오기 시작했다.⁵¹⁾

점차 경기의 호황으로 생활의 수준은 향상되고 소비문화가 정착되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현대화의 경향이 뚜렷해졌다. 여성들의 의식은 나, 나, 나만의 것 등이 중시되는 개성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이기적인 사회문화의 의식이 확산되었다.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자신만이 감정에 충실하고 패션감각을 일상생활 속에서 센스 있게 표현하게 되었다.

80년대 초에는 여대생이나 직장여성을 중심으로 바리칸과 레이저를 사용한 커트인, 핑크헤어, 또는 디스코머리 같은 중성적인 헤어스타일이 참신한 멋으로 유행하였고 커트와 퍼머가 다양해졌고 새 질감의 요구에 부응하는 최신 미용기구도 선보이기 시작했다.

1982년 교복과 두발의 자유화로 여학생들의 스타일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여학생들의 둔탁하고 단순한 형의 보브 스타일이 개성을 중시하며 패션의 가치를 창출하는 세대의 연령이 점차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눈 높이가 다른 문화에서 서서히 동화 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84년부터는 가위와 바리칸의 부조화 커트라인이 유행함에 따라 헤어 디자인에 바리칸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80년대 중반 해외 여행이 자유화되면서 많은 미용인들이 국제 대회나 헤어 쇼에 참가하였고 세계 유명 미용가들의 학교인 영국의 비달 사순과 알란 인터내셔널, 토니 앤 가이, 미국의 피포트 등에서 미용을 연수하고 돌아왔다.

세계 미용가들의 새로운 헤어 콜렉션을 본 우리 나라 미용인들은 자신의 샵에서 이러한 헤어스타일들을 고객들에게 시술해 세계의 유행을 따랐다.

88년 서울에서 올림픽이 개최됨에 따라 미용계는 더욱 국제화되었고 헤어패션에도 더욱 개성을 추구하여 어떠한 한가지 유행스타일에 머물지 않았다.

한국 전쟁후 88올림픽의 개최로 인하여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정치, 경제, 사회, 헤어, 패션 등 전반적인 한국의 가치가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비약적이게 눈부신 한국사회의 발전상을 공개하였다.

중·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클리퍼 레이저를 병행한 커트인 핑크나 상고 스타일 스파니엘의 변형이나 남학생들이 스포츠 머리등 유행에

51) 미용정보신문, 2002년 제265호, p7.

미약한 연령층이 낮아졌으며 헤어드라이어의 도입으로 다양한 미용기구와 제품들을 사용하여 개성을 가꾸었다.

육모 교정술인 스트레이트 펴는 웨이브 펴는 실증이 난 젊은 층들이 선호하였다. 그들은 찰랑거리는 헤어스타일을 신기해 했다. “생머리도 펴는 한다”는 유행어를 파생시키며 연로하신 분들은 이해를 못했으나 여전히 여성들은 매끄러운 타입을 즐겼으며 99년 말에는 매직 스트레이트가 선풍적인 인기다. 예전의 아이롱을 더 발전시켜 스트레이트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번거로운 3~4시간의 공정과정을 거치면서도 요즘 여성들은 매직스트레이트를 모르면 멋쟁이가 아니라는 듯 유행이 번지고 있다.

영국의 황태자비 다이애나의 앞이마를 가린 듯한 바람머리가 거리를 휩쓸었으며 레이커컷의 업스타일이 앙글레즈 스타일로 물결을 이룬 듯한 드라이 기법이 유행하였다. 따라서 여대생이나 직장 여성을 중심으로 클리퍼와 레이저(razor)를 병용한 커트인 핑크헤어 또는 중성적인 헤어스타일이 참신한 멋으로 유행하였고, 브룩 쉴즈의 전형적인 퍼머 웨이브 그 자체로 동양사람들은 이렇게 굵은 웨이브라면 풀렸다고 할 정도로 늘어진 형태의 모양에 앞머리는 짧지만 올리건 내리건 옆가르마건 자유스럽고 섹시한 스타일이다.⁵²⁾

경직되고 깔끔한 단발에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최대한 부드러움을 부각시키기 위해 강한 웨이브보다는 거의 뿌리 부분을 살리기 위한 드라이펌의 테크닉이 강조되었다. 세팅한 듯한 정도로 뿌리를 강하게 띄운 볼륨, 퍼머넌트를 한 후 드라이로 모발의 움직임에 결정하였고 헤어 왁스를 사용하여 윤기를 살렸다.

다양한 기구의 테크닉에 의해 웨이브의 형태와 모양이 색다르게 연출되었다. 볼륨퍼머, 내추럴스타일도 변화되었으며 인위적인 미보다는 내추럴한 웨이브를 선호하였다.

디스코 머리 같은 헤어스타일은 긴 머리를 프랑스식으로 땀은 스타일이 변형되어 굳어진 것이다.

조선시대의 세가닥 땀기에서 유래된 섞어 땀기는 룱헤어에서 두상에 붙어 땀는 매우 간편하고 활동적으로 이용되었다.

포니테일 보다는 더 깔끔하여 우아해 보이고 한복을 입을 때에도 처녀들은 디스코 땀기를 즐겼다. 업스타일의 어른스러움에 비해 부담을

52) 유수경, 한국여성양장문화변천사, 서울, 일지사, 1990, pp158~159

덜 느끼고 한복과 잘 어울렸다.

80년대 초에 흑백에서 컬러 TV로의 전환함으로 인해서 색깔에 대한 이론이 대중매체를 타고 더욱 확산되었으며 유행의 흐름 또한 하루가 다르게 창조되어 일반인들도 손쉽게 모방할 수 있었다.

연예인들의 모션 하나 하나가 민감한 십대들의 취향과 어우러져 매스컴을 통한 오빠 부대가 등장하였으며 자유분방한 스타일을 선호하여 개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서구형의 미의 기준이 등장하였으며 신디 크로퍼트, 나오미 캠벨같은 근육질의 모델들이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건강미를 표현하였다. 키가 크고 눈과 코가 크며 윤곽이 작은 오밀조밀하고 귀여운 TV 미인형이 강조되었으며 자아표현이 강하였다.

80년대의 헤어로는 마치 잔디를 깨끗이 깎은 듯한 남자처럼 짧게 깎은 커트 머리를 뒤로 빗어 남장 여인을 연상케 하는 스타일로 양쪽 측면은 붙여주고 앞머리를 수탉 벼슬처럼 곳곳이 세운 펑크형 가수 데이비드 보위를 흉내낸 스타일 등이 전반적으로 소년처럼 보이는 머리형이 유행이었다. 이런 독특한 스타일은 당시 유행했던 뉴 에이지 음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형식을 파괴하는 충격적인 모습으로 마치 전위적인 예술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게 했다.

헤어 디자이너들의 감성이 여기 저기에서 빛나기 시작하였으며, 유행의 흐름을 보여주는 갖가지 패션 가운데 헤어의 위치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었다.

단정하고 고정된 머리형에서, 머리 결이 자유스럽게 움직이는 듯한 쇼바주형의 자연스런 퍼머 스타일과 소프트한 질감의 머리에서 신선함을 느끼는 경향이었다. 드라이가 등장하여 딱딱한 고대머리 유행을 사그러 들게 했다.

정형적으로 만들어져 스프레이로 딱딱하게 고정시킨 스타일보다 바람에 물결이 흐르는 듯 바람에 나풀거리는 작은 웨이브는 누구나 즐겨하였고 한편 퍼머의 디자인이 다양해짐에 따라 웨이브와 컬에 싫증이 난 젊은 여성층에서 스트레이트 퍼머와 자연스러운 웨이브 퍼머가 함께 유행하였다.

자연스런 웨이브에 헤어제품인 무스와 젤 등을 이용하여 앞머리를 세우는 닭 벼슬(계관)머리가 유행하였다.

또 세계 미용계의 황제라는 프랑스의 알렉산더 드 파리가 한국 미용

계의 초청으로 우리 나라에 왔다. 그의 우아하고 매끄러운(슬리크)머리 결의 질감을 살린 업 스타일의 작품은 경이로웠다.

국내의 각 TV와 신문 문화면에서 대서 특필 하였고 토탈패션 중에서 미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87년도에는 이탈리아 아트 팀을 이끌고 있는 간디니가 그의 팀과 함께 한국에 와서 세미나 작품 발표회를 가졌다. 이 세미나에서 그들은 국내에 포워드 스타일(모발이 앞으로 쏠린 듯한 스타일)을 보급하였다.

얼굴을 감싸듯이 뒤에서 앞쪽으로 선을 흐르게 한 이 스타일은 자유로움을 연출해주는 클래식한 스타일이다.

이 스타일은 86년 봄 프랑스 고등 미용조합이 봄 시즌에 발표한 작품으로 커트 테크닉을 바탕으로 앞머리와 얼굴 둘레 머리 끝에 섬세함을 내기 위하여 시저를 사용해서 테이퍼(taper)를 하여 모발 끝을 가볍게 보이도록 하고 얼굴 위에 새의 깃털처럼 가볍게 커트하여 앞으로 형클어진 듯하게 쏠리는 머리 모양이었다.

이 당시 헤어 디자이너들은 계절마다 새로운 트렌드를 창작 발표하였다. 더욱 새로운 감각의 헤어스타일로 물에 젖은 것처럼 광택이 나고 두부에 붙여서 흐르는 듯한 머리형으로 드라이어로 말려서 세트한 느낌이 나는 것과는 다른 자연스런 퍼머스타일이었다. 이러한 머리 모양이 유행하면서 스타일링 두발 제품이 많이 사용되었다. 스타일링 두발 제품에 의해 촉촉히 젖은 듯한 윤기 나는 머리형은 프랑스의 미용가 장 루이 다비드에 의해 소개되었다. 핑키 스타일도 선보여 머리를 뽀뽀하게 정발제로 세웠다.

70년대 후반기와 마찬가지로 히피 스타일이 퇴조를 보이면서 다시 귀위로 짧게 자르고 뒷머리도 짧은 단발이 유행하였으며, 남성의 여성화 패션의 경향으로 남성들도 퍼머넌트를 하거나 목거리나 팔찌를 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듀오라인을 변형시켜 모발 끝을 가볍게 처리하고 네이프라인에 소프트한 느낌의 포인트를 주었다.

또 옆머리는 귀위로 바짝 치켜서 자르고 뒷머리도 짧게 잘라 백 포인트를 강조하는 도회적인 모습이 돋보였다. 또한 무스나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머리형태를 세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뒷머리를 기르거나 포니테일 형으로 묶는 등 여러 가지의 개성적이고 자유스런 헤어스타일이 나타났다.

젊은 여성들 사이에는 가볍게 풀어 흘러내린 듯한 긴 머리의 퍼머스

타일이 윤이 나고 부드러운 질감의 스트레이트와 함께 거리를 누볐으며, 나이든 여성들 사이에는 곱슬하게 퍼머하여 앞머리는 드라이어로 머리를 세우고 다녔다. 머리핀과 리본이 유행하여 새로운 헤어 패션으로 자리 매김 하였으며 대학가 주변이나 명동의 좌판이나 손수레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었다.

8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을 이룩한 시대로써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해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컬러 TV가 등장하면서 색상 혁명이라 일컬어질만큼 컬러의 다양화가 가속화되었고, 유니섹스 모드가 등장하는 등 개성을 강조한 헤어스타일이 전 시대에 이어 더욱 보편화되고 매스 미디어의 정보화가 이루어져 유행의 확산이 급속도로 대중화가 되었다.

일부 연예인들의 우상화로 십대들의 모방심리를 부추겨 패션이나 헤어스타일의 유행을 확산 시켰다. 또한 일반 대중이 다양한 스포츠와 레저 활동을 즐기고 여행이 자유화되는 등 생활 전면에서 풍요로움과 여가를 즐기는 여유로움이 유행처럼 번져 나갔다.

80년대 초에 발표된 존 트레볼타 주연의 미국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는 세계를 순식간에 디스코 열풍에 휩쓸리게 했다. 또한 영국의 다이애나비의 청순한 바람머리가 만인의 사랑을 받는 신데렐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서양에서 유행한 강한 언밸런스과 도전적인 스타일의 비대칭은 세련된 스타일이기는 했지만 우리 나라의 웨이브 헤어스타일의 강세로 두드러진 유행이 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흘러 지나갔다.



그림 19 <1980년대서양의 헤어스타일-1>자료출처<http://movieland.pe.kr>



그림 20 <1980년대서양의 헤어스타일-2>자료출처<http://movieland.pe.kr>



그림 21 <1980년대서양의 헤어스타일-3>자료출처<http://movieland.pe.kr>



그림 22 <1980년대서양의 헤어스타일-4>자료출처<http://movieland.pe.kr>



그림 23 <198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1>자료출처<http://www.vivisimo.co.kr>



그림 24 <198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2>자료출처<http://www.vivisimo.co.kr>



그림 25 <198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3>자료출처http://misskorea.hankooki.com/photo_image_



그림 26 <198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4>자료출처http://misskorea.hankooki.com/photo_image

제 6절 1990년대

1990년대는 과거 스타일이 공존하면서 컬러로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며 세기말을 마감했다.

그 당시 서양의 그런지 룩(grunge look), 오리엔탈 룩(oriental look)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이때부터 강렬한 색으로 염색을 하고 이리저리 빠친머리가 유행하고, 스타일을 바꾸는 주기가 아주 짧아졌다.

90년대 초반의 최대 유행스타일은 롤 스트레이트 파마이다. 커트든 파마이든 모두 롤스트레이트로 스타일을 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의 변화는 멋내기 염색이었다. 그것도 빨강 노랑, 등의 원색계열로, 몇 가닥 블리치(부분염색)로 시작한 컬러링은 갈수록 대담해져 염색은 물론 한 달이 멀다하고 컬러를 바꾸었다. 남녀노소 구분도 없어졌다. 오히려 너무 새까만 머리는 갑갑함을 느낄 정도였다. 또 이때부터는 볼륨에 대한 개념도 없어졌다. 그래서 긴 생머리부터 빠침머리까지 매끈하고 반듯하지 않고 젊은 세대의 심리가 반영되듯이 두발에도 공기가 통하고 숨을 쉬는 것 같은 스타일로 각자의 개성을 연출했다. 또, 머리수건, 염색머리끈, 부분염색가발까지 등장했다

90년대의 헤어스타일은 패션의 다양화와 컬러의 하모니를 들 수가 있다. 개성을 추구하는 풍조가 정착되면서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자신의 개성을 한껏 부각시키는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여 정확히 어느 스타일이 유행한다고 정의할 수는 없다. 우선 90년대 초에는 60년대의 복고풍으로 돌아가 크라운 부위에 둥글게 양감을 살리면서 현대감각에 맞게 스트레이트와 자연스런 움직임이 있는 스타일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후론트 부분은 스트레이트로 젤을 발라 고정시키고 크라운 부분은 곱슬하고 강하게 부풀려서 양감을 주었다.

염색제 중에서도 영구적인 염색체와 일시적인 염색체 부분 탈색제 코팅제 등이 사용되고 유행되었으며 코팅제는 산성 코팅제와 알칼리성 코팅제로 함께 사용되었다. 이러한 제품들은 10대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었으며 어른들은 주로 멋내기 염색이나 흰머리 커버용 또는 산성컬러 등을 이용하였다. 또 다양한 스타일링 제품들이 출시되어 이용되었고 피스나 가발등을 사용하는 추세가 되었다. 또 가발을 이용하여 짧은 머리를 길게 이어 붙이는 방법은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유행해 가고 있다.

퍼머스타일도 여전히 유행하고 있지만 과거 한가지 룩드나 웨이브에 의한 획일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개발된 룩드에 의해 자연스러우면서도 새로운 웨이브의 흐름으로 질감과 양감을 동시에 표현하면서 복고풍의 바람으로 세팅과 아이론이 재등장하여 머리끝을 바깥말음이나 안말음으로 볼륨 있는 여성스러운 헤어스타일이 나타났다.

또한 헤어 컬러링이 하이패션의 하나로 자리잡았는데 머리전체를 염색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염색의 테크닉으로 모발 다발을 블릿치해서 각자의 취향에 맞는 색깔로 염색하고 컬러시대에 맞게 여러 가지 색깔을 머리부분에 넣어서 느낌이 생생하도록 하는 헤어 전체에 입체감을 즐기는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외에도 패션가발이 유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헤어 스타일링 제품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 자신의 헤어스타일을 창조해낼 수 있는 일반인들의 미용셀프기능이 강화되었다.

90년대는 여성들이 각자의 개성을 추구하는 풍조가 정착되는 시대이자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헤어스타일이 정착되는 연대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90년대는 특별히 어떤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본다.

우선 89년 가을부터 시작된 복고풍의 스타일이 60년대의 스타일로 돌아가 크라운 부위에 둥글게 양감을 살리면서 현대 감각에 맞게 스트레이트하고 네추럴한 움직임이 있는 스타일이 유행을 타기 시작했다.

비누 방울 속을 빠져 나온 듯한 싱그러움을 간직한 조용한 분위기의 스타일에서 복고풍의 이미지를 가미하고 후론트를 위로 올려 르네상스 시대의 풍탕주를 연상시키며 룽 헤어에 잘 어울리는 드레시한 스타일이다.

끊임없이 지속되어 오던 룽헤어 스타일은 약간의 퇴조를 보이면서 종전의 커트와는 달리 스타일링 제품으로 손질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커트가 유행하였다.

헤어스타일은 손질하는 테크닉에 따라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응용이 자유로운 커트스타일은 그것이 부드럽거나 또는 볼륨이 많은 것이든지 간에 특별한 차원이 된다. 이는 패션스타일 못지 않게 그 사람의 인품이나 첫인상을 결정짓는데 대단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의 남성도 여성 못지 않게 헤어나 의상에 지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그 중에 헤어스타일은 각 사람의 개성을 살려주고 의상의 분위기를 새롭게 연출하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될 위치에 있는 것이다.

90년대 초기의 세계적인 헤어의 경향은 “DIRECTOIRE” 스타일이라고 해서 짧은 앞머리가 유행한다. 이 스타일은 네이프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머리카락이 네이프에 닿게 매우 짧게 자르고 귀 뒤 양옆을 풍성히 보이도록 윗머리 앞부분을 둥글게 자르고 옆머리는 얼굴을 향해 뽕족하게 자른 앞머리에 변화를 준 스타일이다.⁵³⁾

이 스타일 역시 크라운 부위나 사이드라인에 볼륨을 주려는 복고풍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변형된 스타일이다. 손질하는 테크닉에 따라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면서 활동적인 스타일로 어느 분위기에서나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다.

퍼머 스타일이 여전히 유행하였지만 컬이 너무 많아 무거운 인상을 주기보다는 부드러운 물결의 움직임처럼 잔잔한 파도처럼 자연스런 컬이 여성의 내면을 부드럽게 표현되었다.

이는 어느 한가지의 룩트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개발된 룩트에 의해서 독특하고 새로운 웨이브의 흐름으로 가고 있었고, 아이롱이나 세팅은 외면되었었다.

그러나 복고풍의 유행으로 세팅과 아이롱이 재등장하여 모발 끝을 바깥말음이나 안말음으로 현대적 감각에 맞는 자유스러운 테크닉에 무브먼트하고 볼륨 있는 여성스러운 헤어스타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롱헤어 웨이브 사이사이에 눈에 띄게 강한 블리치로 탈색을 하여 눈에 띄는 컬러의 부드러움과 윤기를 주어 생동감 있는 스타일도 등장하였다.

또 한편에서는 복고풍과 무관하게 시저를 사용한 디자인 커트로 전체의 스타일을 만든 다음 모발 끝 부분은 레저(razor)로 긁어 내리듯이 뽕족하게 하여 자유 분방하고 불규칙한 느낌을 주는 개성 추구형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즉 경쾌하고 가볍게 보이는 스타일로 어떤 고정관념을 주기보다는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머리형이다.

이를테면 바쁜 일상생활에서 블로우 드라이나 세팅을 하지 않고 굵고 자연스러운 웨이브 퍼머를 한 다음 무스나 젤을 발라서 몇 가닥씩 나누어 손가락으로 웨이브나 컬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다.

53) 김춘득, 전계서, pp241~243

특히 윤기 있고 자유분방한 머리, 부드러운 볼륨이 있는 컬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다양한 스타일링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헤어 컬러링이 어두운 색은 자칫 무거워 보이기 때문에 블릿지나 컬러링으로 하이라이트를 강조함으로써 동양인의 칙칙한 표정을 보완해주고 있는 것이다. 변화하는 삶의 한 부분으로 자신들의 기분에 맞게 자신의 모습을 바꿔줄 수 있는 율동적인 커트와 컬러링을 많이 애용하였다.

컬러시대에 맞게 여러 가지 색깔을 다양하게 모발 사이사이에 넣어서 느낌이 산뜻하고 생동감 있게 헤어전체에 입체감을 주어 위빙 스트랜드를 즐기는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⁵⁴⁾

스트랜드를 염색하는 기술과 모근부분을 질게 하고 모발 끝을 밝게 하는 기술, 브론드로 염색된 헤어로 머리끝 부분을 바깥으로 날리게 하고 후론트는 레이어링을 하고 얼굴위로 내려주는 스타일. 드라마틱한 라인은 정열적인 부드러움에 의한 커트로 이루어진다.

펑키와 커머셜의 중간을 교차하는 비대칭적인 스타일은 정열적인 감성으로 차가운 느낌에 의한 모든 분위기에 맞는 스타일로 이루어진다. 또 크라운에 볼륨을 주기 위해 백콤을 하고 후론트 섹션이 얼굴을 감싸 주는 듯한 60년대의 복고풍 스타일로 포워드스타일을 변형한 것이다. 헤어피스를 사용해서 우아한 포니테일 형의 업스타일에 후론트는 부드럽게 머리가닥들에 젤을 발라 옆가르마와 사이드로 빗어준 프린지의 클래식 스타일 등이다.

그리고 색깔 혼합의 의한 미묘한 뉘앙스의 발견 등 미용사의 감각과 센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문화되고 있다.

한 가지의 헤어스타일에서 단조로움을 느낀 젊은이들은 개성을 찾고자하여 여러 가지의 패션가발이 등장하였다.

정형적인 스타일보다는 자유 분방한 반항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연예계의 헤어나 최첨단의 유행의 멋을 리드하는 부류에서 시도되어 사용되었는데, 어느 사이엔가 대중성을 지니게 되었다.

90년대 젊은이들은 반듯하고 고정되며 획일화된 헤어스타일보다는 자유분방하고 톡톡튀는 아이템을 선호한다.

빠르게 변모하는 현대인의 편리주의 성향과도 일치하는 스타일링 제품과 패션가발의 사용은 내면적 욕구를 표출하려는 욕구의 표현이기도

54) 김춘득, 전제서, pp244~245

했다. 90년대 들어와서 남녀의 구분 없이 미용실을 이용하는 연령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 식민사관의 잔재라 하여 터부시 했던 교복자율화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교복은 학교장 재량에 맡겼다. 검은 후레아 치마에 하얀 컬러를 달고 검정 운동화를 신었던 학생들이 세련된 모습은 사라지고 조끼에 주름치마,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손에 든 가방 댕기 등에 매는 썬소지품을 담고 다니는 학생들은 정형화되고 구세대적인 단조로운 스타일의 탈피나 젊은 신세대의 발랄한 헤어스타일, 왁스나 무스 제리들의 정발제 이용으로 촉촉하고 싱그러운 10대들의 자유 분방함. 이 모든 것은 80년대의 초에 유행했던 남성들의 헤어스타일이 정수리 부분을 중심으로 둥글고 단정했던 모습인 것에 반해 이제는 자유자재로 커팅하고 옆머리도 어떤 특별한 형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짝 밀어버리고 뒷머리도 깔끔하고 하얗게 커팅을 해서 백포인트에 볼륨을 주는 스타일이 유행을 리드하고 있다.

상고 스타일, 스파니엘, 이사도라, 보브, 그라데이션 커팅에다 브릿지를 청색, 보라, 와인, 핑크, 오렌지, 블루블랙등 다양한 색상으로 한참 유행을 리드하는 연예인들의 형식의 틀을 벗어난 스타일을 중점적으로 모방하였다. 팬클럽을 결성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후원하며 오빠 부대가 팬클럽을 중심으로 동원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십대들이 유행을 흐름을 리드해 가고 적극적인 자기 개성을 표현한다.

또한 창조적인 작업에 종사하는 남성 예술가들은 유니섹스를 즐겨 뒷머리를 길게 길러서 포니테일형으로 뒤로 살짝 묶고 여성인지 남성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장발형의 머리카나 단발머리도 남성들 사이에서 개성을 살리는 수단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다. 주로 쇼트 심플 레이어 커트로 헤어가 촉촉해질 때까지 무스나 스타일링 제품을 매끄럽게 바르는 것이 보편화되었으며 응용이 자유로운 커트는 그것이 부드럽거나 또는 볼륨이 많은 것이든지 간에 특별한 느낌을 연출한다.

또한 99년도의 유행헤어는 쇼트와 미디의 비대칭형이다. 브라운과 노랑의 컬러를 믹서한 위빙 컬러링을 혼합하여 힘차고 따뜻한 깊이를 주어 풍부하고 섹시한 이미지를 준다. 겨울은 따뜻한 느낌을, 여름에는 시원한 느낌을 주는 컬러링을 한다.

즉 브릿지와 다크다운을 믹서한 두색 또는 다른 색을 더 첨가한 삼색

컬러링으로 혼합하여 그 효과를 더 할 수 있다.

현대인의 모든 것은 상업주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컬러를 통해 여성스러움과 섹스어필을 할 수 있고 생기 넘치는 쇼트나 클래식 스타일을 최신 제품을 사용하여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한다. 이러한 제품의 시술 결과는 그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크며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다양한 개성과 독특한 개성을 마음껏 살릴 수 있다. 기술적으로도 변화를 요구하고 예술가가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 가듯이 유행하는 섬세한 질감을 표현 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면의 고도의 테크닉을 요구한다.

왓 톨러를 이용한 스타일로 멋지고 단정한 스타일을 위해 브러싱하여 볼륨과 모근을 올려주기 위해 무스를 사용하고 스프레이로 고정시키고 컬러스프레이나 컬러무스가 등장하였다.

한편 90년대 중반에 산성 컬러가 등장하여 새로운 스타일로 육모 고정술이 유행을 리드하고 있으며 60년대의 둥그런 고대기가 넓고 크게 만든 매직 스트레이트 기구를 이용하여 윤기나고 찰랑찰랑한 스타일을 창출해 내면서 드라이의 대체품이 되고 있다. 또 일부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가발이 아닌 이어 붙이기로 짧은 머리를 길게 만들어 주고 있다. 어색하지 않게 아름다운 모발길이를 공들여가며 스타일 변형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이시대의 유행패턴이다.

스켈프 케어나 헤어닥터, 헤어케어등 웨이브만 만들고 자르는 헤어 패션이 아니라 모발의 관리차원에서 두피관리, 헤어관리 등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어 두피, 탈모, 비듬 등에 관한 새로운 정보의 도입과 전문화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⁵⁵⁾

특히, 힙합 패션이 일부 가수들을 중심으로 애용되면서 그들에 의해 십대들의 의식 성향이 유행을 리드해가고 있으며 다가오는 2000년대인 밀레니엄 시대에는 툭툭 튀는 다양하고 독특한 컬러링 시대가 예견되기도 했다.

1998년도에는 헤어월드 챔피언쉽을 서울에 유치해서 개최하여 세계에 한국미용의 위상을 높였으며 민간 외교로서 한국의 미용을 세계의 여러 나라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에서 월드 챔피언 올림픽기 개최됨에 따라 우리 나라의 미용계는 더욱 국제화되었다.

미용 패션에서도 더욱 새로운 테마와 트렌드가 정립되었고, 개성을 추

55) 김춘득, 전게서, pp242~245

구하여 어떤 한 가지의 유행 스타일에 머무르지 않았다. 부드러운 웨이브의 율동감은 많은 스타일의 변형을 가져오고 이는 모든 여성들에게 어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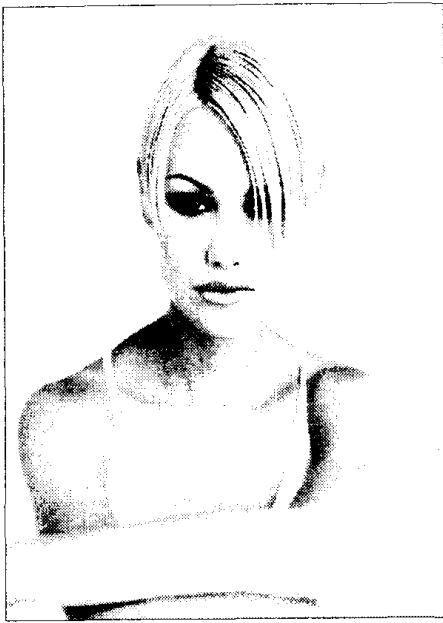


그림 27 <199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1>자료출처<http://www.studiohairecare.com/hairstyles.htm>



그림 28 <199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2>자료출처<http://www.studiohairecare.com/hairstyles.htm>



그림 29 <199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3>자료출처<http://www.idol.pe.kr>



그림 30 <199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4>자료출처<http://www.idol.pe.kr>



그림 31 <199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1>자료출처<http://kr.imagesearch.yahoo.com/search/image>



그림 32 <199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2>자료출처<http://kr.imagesearch.yahoo.com/search/image>



그림33<1990년대동양의 헤어스타일-3>자료출처<http://kr.imagesearch.yahoo.com/search/image>



그림 34 <1990년대 동양의 헤어스타일-4>자료출처<http://www.idol.pe.kr>

제 7절 2000년대 전반기

2000년대 전반기 서양에서의 유니섹스 스타일은 컷트에 있어서 레이어 컷트가 남녀 모두가 애용하는 스타일이 되었고 금발을 선호하여 금발을 만드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개발되었고, 컬러리스트들은 염색이나 블리치 또는 혼합기법을 활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뉴 밀레니엄 헤어 컬렉션을 선보인 세계적인 헤어 디자이너 비달사순팀은 「록커트로닉」, 「퓨전」, 「제로 쿨」, 「블랙」, 「아이돌」, 「패션」 등 6가지 이름의 헤어스타일을 선보였다. 짧은 머리는 층을 많이 내 컷트하고 긴 머리도 중간 길이를 섞어 비죽비죽하게 잘라 강한 이미지를 강조한다. 록스타의 자유로움과 자신감을 반영했다」는 「록커트로닉」은 강한 인상의 앞머리가 돋보인다.

강렬한 부분 염색으로 머리칼을 흔들거나 빗어 넘길 때 마다 숨어있던 색깔이 확연히 드러난다.

또한 사이리즘 인터내셔널이 4개의 이미지 와 4개의 존에서 시작된다는 테마로 트렌드를 내놓았다

4개의 이미지는 샤프(sharpe), 소프트(soft), 모던(modern), 인텔렉추얼(intellectua) 4개의 존은 쿨(cool), 페미닌(feminine), 클래식(classic), 프리티(pretty), 이들 4가지의 이미지와 존을 조화롭게 설정 시킨 사이리즘 헤어디자이너의 유행 패턴이다.

여기에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조화시킨다는 의도이다. 한편 E.zone 뷰티 아카데미에서는 시대의 거센 흐름에 역행하듯 복고스타일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조명했다. 도시적인 세련미와 여성적이고 지적인 멋을 풍기는 스타일, 경쾌하고 귀엽고 보이시한 스타일을 강조했다.

헤어디자인 박준의 헤어스타일 에서도 70,80년대 히피와 펑크스타일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복고적인 문화가 적절히 가미된 트렌드이다 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세련미를 강조하고 중성적인 이미지와 화려한 펑크를 가미한 스타일이다.

이렇듯 한국여성의 검은 머리에는 루비를 연상케 하는 강렬한 빨강과 보라 등을 섞어 넣었다.

스탠리 쿠브릭 감독의 영화 「아이즈 와이드 섯」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제로 쿨」은 과감한 커팅으로 짧은 머리에 다양한 질감을 냈다.

『2000년에는 컷팅과 컬러에 대한 실험정신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

는 비달 사순 은 새로운 세기의 헤어 디자인에는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확고한 가치관, 자신감 넘치는 역동적인 라이프 스타일, 첨단 이미지를 담겨 있다』 고 말했다.

우리나라 디자이너들도 도전적인 이미지야말로 21세기형 이라며 미래 지향적인 테크노풍 사이버 2000을 새롭게 선보였다. 앞머리는 짧아지고 길이는 쇼트에서 중간 단발까지. 1999년 한햇동안 선풍적인 인기였던 일자 형태 긴 머리보다는 층이 많은 레이어드 컷이 인기를 끌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컬러링은 보다 현실적으로 빨간 색이나 블루 블랙 같은 강한 색상 보다는 밝은 하이라이트나 자연스런 갈색 계통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2000년대 전반기 헤어트렌드의 전반적인 경향은 과거로의 회귀다. 여기에 변화무쌍한 현대사회와 현대인의 이미지를 가미시켰다. 따라서 전반적인 헤어디자인은 페미닌한 느낌의 곡선미를 부각시키면서 좌우 스타일의 발란스를 비대칭적으로 구성해 불균형의 조화를 시도했다.

복고풍에 기하학적인 이미지를 적절히 조화시킨 불균형의 조화는 과거와 현대, 미래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으며 개성 있는 현대인의 참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2000년대의 헤어 트렌드는 유리처럼 빛나는 모발, 꾸밈없는 헤어스타일, 심플한 스포츠 쉬크의 헤어 룩이 특징이며 정교한 헤어 컷과 머리카락에 윤기를 주고 관리하여 건강하게 도와주는 세심한 헤어 케어를 통해서 가능하다. 스포티한 패션에서 헤어스타일은 더욱 자유로와 진다.

컴퓨터의 보급으로 전세계가 인터넷 웹 사이트를 통해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의 문명을 접할 수 있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지금 헤어스타일도 그 변화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림 35 <200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1>자료출처<http://www.haircs.com>



그림 36 <200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2>자료출처<http://www.georgecarroll.com/femalegallery.htm>



그림 37 <200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3>자료출처<http://www.georgecarroll.com/femalegallery.htm>



그림 38 <200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4>자료출처<http://www.georgecarroll.com/femalegallery.htm>



그림 39 <200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5>자료출처<http://www.georgecarroll.com/femalegallery.htm>



그림 40 <200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6>자료출처<http://www.georgecarroll.com/femalegallery.htm>



그림 41 <2000년대 전반기 서양의 헤어스타일-7>자료출처<http://www.haircs.com/pelu/main.htm>



그림 42 <2000년대 전반기 서양의 헤어스타일-8><http://hair-factory.com/web/en/index.htm>



그림 43 <2000년대전반기서양
의 헤어스타일-11>자료출처
<http://www.hairworld.co.kr/NewsCast/News.html>

Essentials 2002 헤어트렌드



그림 44 <2000년대전반기서양
의 헤어스타일-12>자료출처
<http://www.hairworld.co.kr/NewsCast/News.html>

Essentials 2002 헤어트렌드



그림 45 <2000년대전반기서양
의 헤어스타일-9>자료출처
<http://www.hairworld.co.kr/NewsCast/News.html>

Essentials 2002 헤어트렌드



그림 46 <2000년대전반기서양
의 헤어스타일-10>자료출처
<http://www.hairworld.co.kr/NewsCast/News.html>

Essentials 2002 헤어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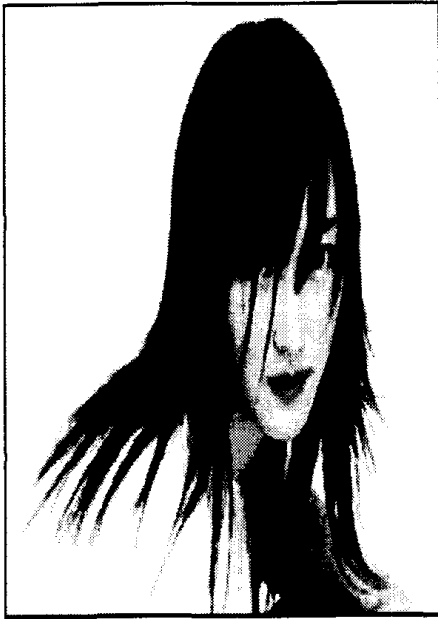


그림 47 <2000년대 전반기 한국 헤어스타일-1> 자료출처 <http://www.leehair.com/gallery>



그림 48 <2000년대 전반기 한국 헤어스타일-2> 자료출처 <http://www.leehair.com/gallery>



그림 49 <2000년대 전반기 한국 헤어스타일-3> 자료출처 <http://www.leehair.com/gallery>



그림 50 <2000년대 전반기 한국 헤어스타일-4> 자료출처 <http://www.leehair.com/gallery>



그림 51 <2000년대전반기 한국헤어스타일-5>자료출처<http://www.hairlove4u.com/style.htm>



그림 52 <2000년대전반기 한국헤어스타일-6>자료출처<http://www.hairlove4u.com/style.htm>



그림 53 <2000년대전반기 한국헤어스타일-7>자료출처<http://www.hairlove4u.com/style.htm>



그림 54 <2000년대전반기 한국헤어스타일-8>자료출처<http://www.hairlove4u.com/style.htm>



그림 55 <2000년대 전반기 한국
헤어스타일-9>자료출처[http://
www.hairworld.co.kr/NewsCa
st/News.html](http://www.hairworld.co.kr/NewsCast/News.html)



그림 56 <2000년대 전반기 한국
헤어스타일-10>자료출처[http://
www.hairworld.co.kr/NewsCa
st/News.html](http://www.hairworld.co.kr/NewsCast/News.html)



그림 57 <2000년대 전반기 한국
헤어스타일-11>자료출처[http://
www.hairworld.co.kr/NewsCa
st/News.html](http://www.hairworld.co.kr/NewsCast/News.html)



그림 58 <2000년대 전반기 한국
헤어스타일-12>자료출처[http://
www.hairworld.co.kr/NewsCa
st/News.html](http://www.hairworld.co.kr/NewsCast/News.html)

제4장 결론

지금까지 1945년 해방이후 부터 2002년 현재까지 50여년간 서양의 헤어스타일 우리 나라 여성의 헤어스타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시대적으로 분석하였다.

각 시대별로 서양여성의 헤어스타일이 우리나라 여성의 헤어스타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면

1945년 해방 무렵 서양에서는 2차 대전의 발발로 여자들의 머리 모양이 굽슬거리는 긴 머리모양으로 바뀌었으며, 여자들은 머리를 등 뒤와 어깨로 길게 늘어뜨렸으며 이 긴 머리를 이마 위로 빗어 넘겨 롤-백 풍파두르 모양과 뉴-룩스타일이 유행되었다.

이와 같은 서양 헤어스타일의 영향으로 우리 나라는 1945년 광복 후에 일제 말에 금지되었던 퍼머넨트 스타일이 다시 등장하였으며 전기 퍼머와 더불어 가봉 퍼머가 나왔고 원롤 지라시등의 아이론에 의한 스타일이 유행되었다. 까뮈 머리카락 묶은 머리에 익숙해 있던 일반 여성들도 퍼머나 세팅 또는 아이론으로 웨이브를 냈다.

1950년대에는 서양의 포니테일 스타일, 푸들커트스타일은 우리 나라의 헤어스타일에 영향을 미쳐 불 과마에서부터 콜드과마까지 과마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아이롱을 이용한 웨이브, 업스타일이 유행했다. 부팡 스타일과 중반에는 불퍼머를 하였으나 한편에서는 콜드 퍼머액이 새로 들어와 전기나 가봉으로 하던 번거롭고 불편하던 퍼머 시대는 차츰 인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1960년대 서양에서는 가발을 이용한 헤어스타일이 나타났으며 이 시대의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인 비달사순이 전세계 미용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는 반만 틀어 올린 트위스트 머리, 봄베이지 스타일은 짧은 머리이면서 위에 가발을 틀어 올려 60년대 후반에 가발이 등장하면서 가발을 이용한 머리가 유행되었었다.

1950년대를 거치면서 헤어스타일이 급격히 다양해짐에 따라 미용사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이러한 추세는 1960년대까지 이어져 여성들은 옷보다 헤어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여성의 헤어스타일은 크라운 부위가 높고 볼록한 스타일이 연출되었다. 이 시대의

유행은 보이쉬한 스타일과 소녀적이고 인형 같은 헤어스타일이다.⁵⁶⁾

70년대 서양 헤어스타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비탈사순팀의 실험적이고 완벽한 테크닉에 의한 헤어스타일과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헤어스타일 역사에 이정표를 만들었다. 우리 나라도 그 영향으로 머리 모양이 버섯과 비슷한 머쉬룸(Mushroom), 나비의 날개와 같아 붙여진 화이어 플라이(Fire fly) 등이 크게 유행한 커트 전성기 시대로 접어들었다.

70년대에는 지금까지의 아이론과 세트에 의한 웨이브 구성이 서서히 사라지고 블로우드라이란 가벼운 스타일이 나왔으며 유행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머리가 유행하면 모든 여성들이 따라하는 때로 미용산업의 역사에 있어서 이때가 가장 업그레이드(up grade)된 시기였다. 퍼머도 생활화 되기 시작했고 커트라는 개념이 생겼다. 이때부터 머리 손질을 한다는 인식이 생기는 때이기도 했다.

80년대 서양은 다양한 스타일의 디자인이 도입되어 레트로 룩(Retro Look)이 주류를 이뤄, 컬(Curl), 웨이브(Wave), 펌(Permanent Wave)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여 헤어스타일에서는 80년대말 헤어 패션계를 휩쓸었던 디스커넥션 커트(Disconnection Cut)가 현대적인 감각과 어우러져 모더니즘으로 승화되어 나타났다.

텍스처(Texture), 컬러(Color), 메이크업(Makeup) 등에서 과장된 스타일이 시도되지만 예전 그대로가 아닌 보다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되어진다.

서양의 80년대는 스타일링 제품의 사용과 잦은 퍼머와 염색, 탈색 등으로 손상된 모발을 보호 재생하는데 주의를 기울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80년대는 파마를 한다는 것이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민감해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똑같이 머리를 할 정도였다. 이 시기에는 바리칸과 레이저를 사용한 커트인, 핑크헤어, 또는 디스코머리 같은 중성적인 헤어스타일이 참신한 멋으로 유행하였고 브룩셀즈의 눈썹과 같은 자연적인 굵은 눈썹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서양에서 유행한 강한 언밸런스과 도전적인 스타일의 비대칭은 세련된 스타일이기는 했지만 우리 나라의 웨이브 헤어스타일의 강세로 두드러진 유행이 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채 흘러 지나갔다.

90년대 서양의 그런지 룩(grunge look), 오리엔탈 룩(oriental look)의

56) <http://hairpia.co.kr>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이때부터 강렬한 색으로 염색을 하고 이리저리 빠친 머리가 유행하고, 스타일을 바꾸는 주기가 아주 짧아졌다.

90년대 초반의 최대 유행스타일은 롤 스트레이트 파마이다. 커트든 파마이든 모두 롤스트레이트로 스타일을 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의 변화는 멋내기 염색이었다. 그것도 빨강 노랑, 등의 원색계열로, 몇가닥 블리치(부분염색)로 시작한 컬러링은 갈수록 대담해져 염색은 물론 한 달이 멀다하고 컬러를 바꾸었다. 90년대의 헤어스타일은 패션의 다양화와 컬러의 하모니를 들 수가 있다. 개성을 추구하는 풍조가 정착되면서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자신의 개성을 한껏 부각시키는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여 정확히 어느 스타일이 유행한다고 정의할 수는 없다.

2000년대 전반기 서양에서의 유니섹스 스타일은 컷트에 있어서 레이어 컷트가 남녀 모두가 애용하는 스타일이 되었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뉴 밀레니엄 헤어 컬렉션에서 「록커트로닉」, 「퓨전」, 「제로 쿨」, 「블랙」, 「아이돌」, 「패션」 등 6가지 이름의 헤어스타일을 선보였다. 헤어컬러는 강렬한 부분 염색으로 머리칼을 흔들거나 빗어 넘길 때 마다 숨어있던 색깔이 확연히 드러나게 했고 한국여성의 검은 머리에는 루비를 연상케 하는 강렬한 색을 연출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헤어스타일은 각 시대별로 서양문화 특히 화장문화, 헤어스타일 문화로 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므로 서양의 미용문화 연구는 우리나라 헤어스타일 연구를 위해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미의 외적 기준은 일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 항상 변화되는 것이므로, 그 시대의 욕구와 문화 조류에 보조를 맞추고 새롭게 개발되어지고 있다.

더구나, 인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와 발전을 계속해온 헤어스타일은 의상, 메이크업과 함께 패션경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고 개성의 강조와 유행의 물결 속에 새로운 미용예술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헤어스타일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문화이다. 특히 미용예술로서 모발이라는 살아있는 예술적인 소재를 통해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헤어스타일은 최근 패션이라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양한 스타일로 공존하고 있으며 선진화된 미용문화의 도약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특별히 이것이라고 할만한 유행이 없는 시대이다.

현재는 이러한 경향이 강해질수록 젊은층의 자기주장이 새롭게 표현되며 헤어나 패션 등이 개성표현, 자아발견이라는 형태로 정착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변화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유행은 헤어스타일이든 복식이든 그 흐름이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스켈프 트리트먼트등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고 대학에 미용학과가 설치되어 학문과 산업이 연계해서 연구하여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인의 독특한 개성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감각적인 유행이라든가 새로운 테마를 창안해서 발전시킨다는 생활문화의 이상을 모방하는 심리가 확산됨으로 해서 대중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또한 20세기의 헤어스타일은 세계 제1차대전의 종결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여건에 의한 여성들의 정신적, 물질적인 변화를 나타내 주는 것이었다.

한국여성들이 헤어스타일은 그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면서 변화해왔지만 고려 시대나 조선시대와는 달리 20세기에는 서양과의 문화교류가 활발해졌고, 특히, 1945년 해방이후 부터 2002년 현재까지 50여년간 서양문화는 급속도로 발전하였고 우리나라 문화도 크게 변모하였다. 급변하는 세계문화에 따라 헤어스타일 문화도 거기에 부응하여 변화하였고 서양 특히 한국과 가장 밀접한 문화교류를 가진 미국의 사회적 배경, 화장패턴, 헤어스타일 문화는 각 시대별로 우리나라 여성의 헤어스타일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런 가운데서도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기술을 지키면서 새로운 문화와 기능을 형성하고 재 표출하여 다양한 조화를 이루는 미용문화에서의 퓨전 현상이 일어나, 또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동양의 헤어스타일과 서양의 헤어스타일의 새로운 만남의 발상으로 여러가지 다양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동서양의 많은 헤어디자이너들이 역사적인 조형물이나 기법들을 이용해 다양한 작품을 창조해 나가고 있으며 하나의 헤어 포지션에 약간 변형 시켜가면서 획기적인 다양한 헤어 스타일과 컬러와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헤어 트렌드에서 다양한 스타일과 컬러를 사용하여 실험적인 헤어스타일을 창작하였다.

그러나, 서양에서 유행한 헤어스타일이 우리나라에 들어 오면서 한국

인의 의상, 얼굴형, 체형과 결합하여 어울릴 수 없었던 스타일은 유행하지 못하고 흘러지나간 것도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으로 한국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과 습속으로부터 전래된 부분도 있지만 서양의 문화와 지대한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녀 평등의 일상에서 여성들이 미용문화의 주체자로서 역사적 자각을 갖고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기로 결심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여전히 여성을 그 흐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헤어 스토리나 미용문화의 발전 여부는 생활의 편익 시설이면서 예술의 창조자인 미용문화에 종사하는 미용인의 몫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제반 사항은 미용문화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학술적 가치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는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예술가로서 자부심을 키워나가야 하며, 밀레니엄 시대에 우리의 위상을 확대시켜 나가야 함과 동시에 새 천년의 유행을 리드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헤어스타일을 분석하고 예측 전망하여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양 특히 미국의 사회문화, 화장문화, 헤어스타일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바람직 하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는 컴퓨터의 발달로 전세계가 인터넷 웹 사이트를 통해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의 문명을 접할 수 있어 헤어스타일도 그 변화 주기가 점점 빨라질 것으로 판단 된다. 모든 형식, 모든 고정관념, 종전의 것은 거부한다.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움 속에서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 소리 없는 아우성, 미완성에서 완성의 출발점을 발견해 본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강현두·원동진·전규찬, 현대 대중문화의 형성,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 강현두외 3인, 현재 대중문화의 형성,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 고연기, 잡지편집의 이론과 실제, 서울 보성사, 1984.
- 고주미, 패션의 수용 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 홍익대학교산업미술대학원, 2000.
- 국민민속박물관, 한국의 얼굴, 서울 : 신유, 1994.
- 권혜옥·유송옥, 한국 현대 남성복 변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제26집, 1996.
- 김대환, 6·25동란 이후 정치 엘리트의 의식변화, 「해방 40년 한국 현대사회의 재구성」, 세계평화 교수협의회, 서울: 일념, 1985.
- 김덕록, 화장과 화장품, 도서출판 답게, 1998.
- 김명주. 한국 여성의 헤어스타일 조형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 김복숙. 여성 헤어스타일의 인상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 :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 김선숙. 유행 스타일의 결정과 확산에 대한 설명 모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4.
- 김수진. 패션과 메이크업 경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상명대학교 대학원, 1998.
- 김양휴. 패션 헤어스타일의 선호와 성격간의 상관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건국대학교 대학원, 1996.
- 김희숙, 이은임(1996). 메이크업과 패션. 수문사
- 김희숙. 20세기 서구 여성 헤어 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김희숙. 20세기 한국과 서양의 여성 화장 비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9.
- 도주연. Hairstyle 변화에 의한 얼굴이미지와 형태의 비교 고찰,

- Computer Graphic Simulation을 이용하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1.
- 미용교재 연구회. 복식 사전. 서울 : 라사라, 1995.
- 미용교재연구회,종합미용이론,유신문화사,1998,p2.
- 박길순, 한국 현대 복식의 발달에 미친 요인 분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백영자. 한국의 복식. 서울 : 경춘사, 1993
- 안명숙 외 1명, 한국 복식사. 서울 : 교문사, 1996.
- 안현경(1995). 20세기 서구 여성의 머리형태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수경. 한국 복식사 연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5
- 유수경. 한국 여성 양장 변천사. 서울 : 일지사, 1990
- 유희수. 한국 복식 문화사. 서울 : 교문사, 1996.
- 윤지성. 헤어 컬러에 따른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세종대학교 대학원, 2001.
- 이경자. 한국 복식사론. 서울 : 일지사, 1998
- 이나영. 현대 여성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도 : 관동대학교, 1999.
- 이능희. 태평양 50년사. 서울 : (주)태평양 화학, 1995.
- 이선재. 의상학의 이해. 서울 : 학문사, 1998.
- 이주연. 20세기 헤어스타일의 변천 분석. 석사학위논문, 충청도 : 충남대학교대학원, 1995.
- 이호정. 패션 마케팅 & 패션 트렌드 분석. 서울 : 교학 연구사, 1996.
- 전선정 외 3명. 미용 미학과 미용 문화사. 서울 : 청구 문화사, 2001.
- 전완길 외 8명. 한국 생활 문화 100년. 서울 : 장원, 1995.
- 조은열 (1996). 20세기 화장문화에 관하여. 이화여대 대학원 의류직물학과 석사학위 논문.
- 지미정. 우리옷 이천년. 서울 : 미술 문화,2001.
- 최영경. 한국 여성의 화장 문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
- 패션 큰사전 편찬 위원회. 패션큰사전. 서울 : 교문사, 1999
- 한국화장문화연구소. History of ESTETICA. ESTETICA
- 한명숙. 마뛰아쥬 예술. 서울 : 청구 문화사, 1999.

황선진 외 2명. 복식 문화. 서울 : 교문사, 1996. 복식 대백과 사전.
서울 :문화 출판사, 1996

외 국 문 헌

- Dylan Jones, Haircults, London: Thames and Hudson,1990.
- David bond, Glamour in fashion Guinness publishing, 1992, p.15.
- Decorated Skin, Karl Gr ning, Thames and hudson
- Demornex, J.(1989). Balenciaga. London : Thames & Hudson.
- Diane Fishman & Marcia Powell,Vidal Sassoon,N.Y:Rizzoli 1999.
- Douglas, R. A.(1983). Costume History & Style. New jersey :
Prentice Hall Inc.
- Eauclaive, S.(1981). New Colar/NEw work. New work: Abbevill
Press.
- Elane Feldman in Decade 1990s, London: Batsford Ltd.
- Geogina Howell, In vogue, London : Ramdon House, 1975, p.109
- Georgia Courais Tortora, P. & K,Eubank. A Survey of Historic
Costume Women'Headdress and Hairstyles.
- Georgina Howell, In Vogue 75 Years of Stlye, London: Conde Nast
Books,1991.
- glynn, P.(1979). In fashion, Dress in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George Allen & Unwin.
- Gold, A.(1975). 75 Years of Fashion. New York: Fairchild.
- Gove, P. B.(1983).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London: Merrian Webster.
- Howell, G.(1979). In Vogue, Six Decades of Fashion. London:
Penguin Books Ltd.
- La Tribudel Tatuaggion, Rufus C. Camphausem, Lura Libri.
- Leese, E.(1983). Costume Design in the Movies. New York:
Frederick Ungar Pub. Co.

- Leymarie, J.(1987). Chanel. New York : Rizzoli.
- Lister, M.(1982). Costume : An Illustrated Survey from Ancient Times to the Twentieth Century. Boston : Plays Inc.
- Maguillages visages, Savoir Croer, Sophie Leconte
- Makara de la compagnie 여 Terrain Vague.
- Makara, Dessain et tolra, Realises parele groupe.
- Mansfield, A. & p. Cunningham(1973). Handbook of English Cstume in the Twentieth Century 1900~1950. Boston: Plays Ind.
- Marly, D.(1980). The History of Haute Couture. New York: Holmes and Meier.
- Melinkoff, E.(1984). What Wore : on Offbeat Social History of Women's Clothing, 1950 to 1980. New York : Qill.
- Milbank, C. R.(1985). Courue. New York : Stewart.
- Nathalie chahine, 100 ANS ED BEAUTE, Editions Atlas S.A., paris, 1996, p.34
- Richard Corson,Fashion in Hair,London: Peter Owen ,1991.
- Robin tolmach Lokoaff & Raquell Scherr, Face Value the poilitics of Beauty Rouhedge Kegan paul, 1984, pp.98~100.

인터넷 웹사이트

<http://100.naver.com/search.naver>

<http://ezlaw.hihome.com>

<http://hairpia.co.kr/gallery/main.htm>

<http://imagesearch.yahoo.co.kr>

<http://kr.imagesearch.yahoo.com/search/image>

http://missskorea.hankooki.com/photo_image

<http://movieland.pe.kr/>

<http://my.dreamwiz.com>

<http://my.dreamwiz.com/orfeu/monro.jpg>
<http://www.allposters.com/gallery> Audrey Hepburn
<http://www.csmt.co.kr/hotissue/view.asp>
<http://www.cyberbeauty.co.kr/link/>
http://www.cyberbeauty.co.kr/link/link_woman.html
<http://www.fashionzip.ne>
<http://www.georgecaroll.com/femalegallery.htm>
<http://www.hair.co.kr/hair/hairstyle/>
http://www.hair.co.kr/hair/hairstyle/06_up_01.htm
<http://www.haircs.com>
<http://www.hairlove4u.com/style.htm>
<http://www.hairshow.co.kr/content/table2/newhair11.htm>
<http://www.hairworld.co.kr/Hairstyle/bestsalon/>
<http://www.hairworld.co.kr/NewsCast/News.html>
<http://www.leehair.com/gallery>
http://www.pajuwomen.or.kr/tea_guide/frm_tea.htm
<http://www.parkjunbs.com/>
<http://www.studiohaircare.com/hairstyles.htm>
<http://www.vivisimo.co.kr>
<http://www.women.or.kr/culture/clothes/history/hair3>

ABSTRACT

A Study on Influence of Western Hairstyles on Korean Womens
Hairstyles ever Since 1945

Kim, Jin-Sook
Fashion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
Hansung University

The following is the chronological analysis of the influence the western hairstyle has had on the Korean women from 1945 to early 2000:

Around the year of 1945, the outbreak of World War II changed womens hairstyle in such a way as for them to wear a curling long hair. As a result, two hairstyles, the roll-back pompadour and the new look style, began to pick up among women. Therefore, some women wore long hair hanging down to the back and covering the shoulders, while others combed their hair up over the foreheads.

Influenced by this vogue, Korean women began to wear the perm hairstyle after Koreas independence in 1945, which had been prohibit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e pony tail style and the poodle cut style in the west affected Korean women and led them to favor the wave style and the up-style in the 1950s.

The 1960s watched wigs getting in vogue in the western countries. In the meanwhile, Vidal Sassoon, one of the most renowned hair designers in the world, wielded a great influence over the globe.

Likewise, Korean women in those days liked to wear the twist hair or wigs.

What should be noticed of the 70s western hairstyles is the works of Vidal Sassoon. Vidal Sassoon's team created a hairstyle for each lifestyle through challenging but perfect techniques, leaving a benchmark in the history of the hair styling. Consequently, Korea indulged itself into an era of the haircut when in great vogue were the mushroom style looking like a mushroom, and the fire fly style looking like wings of a butterfly.

In the 1980s, introduction of various styling designs fascinated the mainstream of the west with the retro look, whose influence on Korea made it no longer unusual to get permanent waves.

The 1990s grunge look and the oriental look of the west induced Korean women to dye their hair in strong colors and to favor uneven hairstyle. In addition, the cycle of changing hairstyle had been remarkably shortened.

The west got charmed with the unisex style in early 2000, allowing many men and women to share the same styles. Following the trend, Korea introduced 6 hairstyles in the New Millennium Hair Collection.

As discussed above, throughout the history, the hairstyles in Korea have been profoundly influenced by the western culture, especially the western makeup styles and hairstyles. Therefore, exploration of the western hair- and makeup-styling conveys a great significance in conducting researches on the Korean hairstyles.

In the future, it is believed that the cycle of changes in hair-styling will get remarkable shortened with the advance in the computer technology, which enables the world to have a much faster access to other cultures over the Internet.